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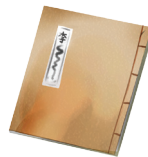
사물의 기억,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 3

차 례

- 1) 낡은 사진기 - 스코필드 박사를 말하다 5
- 2) 뽑혀진 손톱 - 이신애 지사를 말하다 19
- 3) 떼어진 계급장 - 몽클라르 중령을 말하다 35
- 4) 날카로운 단검 - 김옥상 일병을 말하다 49



- 5) 권총 두 자루 - 김상옥 의사를 말하다 63
- 6) 오래된 구급 가방 - 오금손 대위를 말하다 79
- 7) 가문의 족보 - 이장원 중위를 말하다 95
- 8) 장군의 만년필 - 밴플리트 부자를 말하다 109





Chapter 1

넓은 사진기



스코필드 박사를 말하다

스코필드 박사를 말하다

일제의 눈엣가시가 된 스코필드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일제의 잔악함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가 보낸 편지를 통해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의 조선인들이 일제의 총칼 아래 목숨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일제는 그런 스코필드를 한국의 식민지배에 걸림돌이 되는 가장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조선인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이름을 짓다

“우리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들었소만. 어떤 이름으로 지었소?”

“석호필이라 지었습니다.”

“석호필이라, 그럴듯한데요. 스코필드를 한국식 발음에 맞춰 고친 거군요.”

“나름 한자 뜻도 붙여보았습니다. 돌 석(石), 호랑이 호(虎), 도울 필(弼), 그러니까 호랑이와 돌과 같은 굳은 의지로 조선인을 돕고 싶다는 그런 뜻이지요.”

일제의 만행을 사진에 담다

스코필드는 이 일을 세상에 알려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른 그들이 꼭 벌을 받게 하겠다고 여인과 아이들에게 약속했다. 그는 또 다른 학살이 벌어진 옆 마을까지 방문해 일제의 만행을 고스란히 내 몸에 담았다. 사진기로 태어난 내 운명을 닦할 만큼 끔찍한 현장이었다.



나는 사진기다. 지금은 케케묵은 구식제품이 되고 말았지만 내게도 한때는 세상을 놀라게 만들던 현장을 담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시절 나와 함께 하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사람들은 그를 선교사로, 수의사로, 그리고 박사로 불렀다. 하지만 나는 그를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한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였다. 그가 처음 한국땅을 밟았던 1916년 어느 봄날부터.

“스코필드 박사, 정말 고맙소. 그나저나 당신을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소. 당신은 선교사인 데다 세균학¹⁾과 위생학²⁾을 가르치는 박사니 말ियो.”
“애비슨 교장 선생님. 전 그냥 스코필드가 좋습니다. 게다가 이곳에서 젊은 학생들에게 의학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소. 여기 이 나라는 지금은 비록 일제의 식민지가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나라요. 분명 박사도 느끼는 게 많을 거요.”

고국 캐나다를 떠나 낯선 땅 한국의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스코필드는 어딜 가나 조선인의 환대를 받았다. 그는 우리 말을 열

1) 세균학 세균류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

2) 위생학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학의 한 분야.

3)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한국의 서양 의학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학교로 현재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심히 배웠을 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조선 사람들을 만났다. 그의 분신처럼 따라 다닌 나 역시 한국의 풍경과 사람을 담는데 금세 익숙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스코필드는 놀라운 광경과 마주했다.

“순순히 따라와!”

“내가 뭘 잘못했던 말ियो. 저 일본인들이 우리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우리 아이들을 때리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소. 잡아가려면 저놈들을 잡아가시오.”

“감히 조선인 주제에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일본 순사들은 항의하는 조선인을 쓰러뜨리더니 마구 짓밟았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두려운 광경이었다. 보다 못한 스코필드가 나서려 하자 동료들이 막아섰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일제는 조선인을 함부로 대합니다. 심사가 뒤틀리면 목숨을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지요.”

“어찌 저럴 수 있습니까? 말려야지요.”

“그냥 잡시다. 괜히 나섰다가 애꿎은 우리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단 말ियो.”

동료들의 만류 속에 발길을 돌리면서도 스코필드는 일제의 탄압에 시달리는 조선인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어느새 파란 눈의 조선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슴속에 독립의 열망을 품은 한국사람의 마음 역시 그에게 고스란히 옮겨졌다. 스코필드라는 이름을 대신할 한국식 이름을 따로 지었을 정도였다.

“우리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들었소만. 어떤 이름으로 지었소?”

“석호필이라 지었습니다.”

“석호필이라, 그럴듯한데요. 스코필드를 한국식 발음에 맞춰 고친 거군요.”

“나름 한자 뜻도 붙여보았습니다. 돌 석(石), 호랑이 호(虎), 도울 필(彌), 그러



“니가 호랑이와 들과 같은 굳은 의지로 조선인을 돕고 싶다는 그런 뜻이지요.”
 “대단하십니다. 참으로 당신은 우리 민족을 위해 하늘이 내린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 부끄럽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걸요.”

사람들 사이에선 조선인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는 스코필드의 소문이 점점 퍼져 갔다. 그 무렵 세브란스병원 제약부⁴⁾에서 일하는 이갑성⁵⁾선생이 스코필드를 찾았다.

“스코필드, 어려운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우린 비밀리에 독립 만세운동을 준비 중입니다. 우릴 좀 도와주세요.”
 “독립 만세라, 그건 위험한 일이 아닙니까?”

4) **제약부** 여러 가지 약재(藥材)를 섞어 조제한 약을 만드는 곳으로 지금의 병원 약국.

5) **이갑성** 한국의 독립운동가로 3·1 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 되어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으며, 1931년 신간회 사건으로 조선총독부의 탄압을 피해 상하이로 망명, 독립운동을 펼쳤다.



순간 이갑성 선생의 눈에 당혹감이 실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나 스코필드는 태연히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하하하, 놀라지 마시오. 그런 위험한 일에 나 같은 이방인을 끼워준다는 것이 기쁘다는 말이요. 내가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저는 순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말씀드리죠. 바로 내일인 3월 1일 우린 대대적인 독립 만세 운동을 벌일 겁니다. 그 현장을 사진으로 좀 기록해 주십시오.”

“내게 부탁할 게 그것뿐입니까?”

“우리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해외에 알려주시는 역할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정세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래전부터 조선의 독립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소. 내가 도움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리다.”

그를 찾아온 이갑성 선생은 실은 1919년 3·1 운동을 준비한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이었다. 그가 돌아간 이후 스코필드는 내 몸에 붙은 면지를 털어내고 필름을 챙겼다. 흡사 결전의 의지를 다지는 것 같았다. 흥분되긴 나도 마찬가지였다. 불과 하루 뒤면 내가 역사의 놀라운 현장을 기록하게 될 것 같다는 예감 때문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3월 1일이 왔다. 오전부터 여기저기서 만세 소리가 퍼지고 있었다. 아침부터 서둘러 나를 챙겨 밖으로 나왔던 스코필드는 자유를 요구하며 일어난 조선인의 모습을 그대로 내 몸에 담기 시작했다.

“스코필드!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나저나 이 많은 사람은 다 뭐니까?”
“조선인들이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하기 위해 만세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독립을요? 조선인들 스스로 일제의 식민지배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까?”
“일제가 강압적으로 조선의 주권을 빼앗아 갔을 뿐입니다. 저걸 보세요. 흰옷을 입은 조선인들이 목청껏 독립 만세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들은 오로지 독립만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저들의 모습이 참으로 눈부시지 않습니까?”

스코필드에게 말을 걸어온 외국인은 그제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스코필드가 3·1 운동을 촬영한 필름은 이후 전 세계에 알려지며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일제의 강압적 지배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을 꿈꾸는 조선인들의 열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일제의 탄압도 점점 심해져 가고 있었다. 그것이 늘 스코필드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자네도 그 소문 들었는가?”

“무슨 소문?”

“장날에 모여 만세운동을 벌였던 수원의 어느 마을 사람들이 일본군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당했다는 소문 말이야. 그 자리에서 수십 명을 태워 죽였대지.”

“설마, 아무리 극악한 놈들이라도 그럴 리가 있겠는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그는 가만히 있지 못했다. 결국, 나를 챙겨 소문의 진원지인 수원 제암리⁶⁾로 갔다. 마을에는 매캐한 탄내가 흐르고 있었다. 몇몇 여인들과 아이들이 낮이 나간 얼굴들을 한 채로 주저앉아 있었고, 그 위로 까마귀가 불길한 소리를 내며 날고 있었다.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걸음을 옮기던 그가 잣터미로 주저앉은 건물의 형체를 발견했다. 그곳엔 칼을 찬 순사가 있었다. 그는 모르는 척 물었다.

“이게 다 뭐니까?”

“당신이 알 바 아니요. 가던 길 가시오.”

일제 순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장에라도 칼을 휘두를 기세였다.

“누가 여기에 불을 냈는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당신이 조선인이 아닌 걸 다행으로 알아. 물어봐도 해줄 말이 없으니 얼른 가시오. 계속 귀찮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요.”

“가면 될 거 아니요.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겁까지 줄 건 없잖소.”

스코필드가 생각보다 순순히 그 자리를 떠났다고 생각한 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그는 순사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나를 꺼내 들고는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여인들과 아이들 곁으로 갔다.

“도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아무도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6) 제암리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에 속한 제암리는 과거 '두령바위굴'로 불리우던 전형적인 씨족 중심의 평화로운 농촌마을이었으나 1919년 3·1 독립운동 이후 화성지역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의 탄압을 받은 곳으로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로 조명받고 있다.

“나는 돕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소문을 듣고 왔어요. 하지만 당신들의 입으로 직접 듣길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확신을 하고 당신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의 말을 듣는 여인들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중 얼마나 깨물어 뜯었는지 온통 입술이 뭉그러진 한 여인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지난 4월 15일 일제 군인들이 마을에 들이닥쳤어요. 처음에는 지난번 만세운동⁷⁾때 우리를 심하게 다룬 것을 사과하겠다고며 마을 남자들을 죄다 교회에 모이라고 했어요. 오지 않은 사람들은 일부러 찾아서 데려왔죠. 그때부터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교회의 문이란 문은 전부 막아버린 다음에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교회 안팎에 짚을 늘어놓고 석유를 끼얹으며 불을 질렀죠. 마을에도 마구잡이식으로 불을 질렀어요.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스코필드는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내 몸에는 그의 분노가 그대로 전해졌다.

“모두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스물세 명이나 죽었어요. 내 남편과 자식도 다 그놈들 손에 원통하게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스코필드는 이 일을 세상에 알려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른 그들이 꼭 벌을 받게 하겠다고 여인들과 아이들에게 약속했다. 그는 또 다른 학살이 벌어진 옆 마을까지 방문해 일제의 만행을 고스란히 내 몸에 담았다. 사진기로 태어난 내 운

7) 만세운동 1919년 3월 31일 경기도 화성시(당시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에서 인근의 주민 천여 명이 장날을 이용해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벌어진 검거작전에 맞서 주민들이 밤마다 뒷산에 올라 봉화를 올리는 등 항일항쟁을 이어나가자 일제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주모자 사살은 물론 더욱 강경한 검거작전을 펼쳤다.



명을 탓할 만큼 끔찍한 현상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스코필드는 부지런히 움직였다. 내 몸에 담긴 사진을 뽑아 사건 설명과 함께 보고서를 만들어 캐나다 선교본부는 물론 여러 신문에 보냈다. 그대로 문혀버릴 수도 있었던 ‘제암리 학살사건’⁸⁾은 그렇게 세상에 드러났다. 하지만 일제는 철저히 양심을 저버렸다.

“스코필드, 이번에 아주 큰 일을 했네. 그런데 놈들은 끝내 진실을 숨겼어. 마을 사람들이 집단으로 덤벼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격이 시작됐고, 그 혼란 중에 일어난 불이 바람을 타고 교회로 옮겨붙는 바람에 사고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네. 계획적인 만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사고라는 거야.”

“비열하군. 수십 명의 생목숨을 앗아놓고도 그따위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내 이런 나쁜 놈들로부터 이 나라 민족이 독립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네.”
“우선은 자네 몸조심부터 하게. 자네의 폭로 덕분에 어쨌든 일본 당국이 큰 곤욕을 치르지 않았나. 분명 버르고 있을 것이야.”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일제의 잔악함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그가 보낸 편지를 통해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의 조선인들이 일제의 총칼 아래 목숨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일제는 그런 스코필드를 한국의 식민지배에 걸림돌이 되는 가장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스코필드, 이제 그만 조선을 떠나게.”

“그럴 수 없습니다. 조선인들을 두고 떠날 순 없어요.”

“지금 자네를 강제 귀국시키라는 일제의 압력이 대단하네. 우리 병원으로서도 어쩔 수 없네.”

8) **제암리 학살사건** 일제강점기인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현재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교회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으로 당시 일제는 교회의 모든 문을 폐쇄하고 무차별 총격으로 23명을 학살한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교회에 불을 질렀다.

“제가 병원을 그만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론 해결이 안 돼. 저들은 눈엣가시 같은 자네를 없애려 혈안이 되어 있네. 암살 시도까지 있었지 않나. 자네 같은 사람을 허망하게 잃는다면 평생의 한이 될 거야. 그러니 캐나다로 돌아가 그곳에서 일제의 부당함을 알리게. 자네가 돕고자 하는 조선인들도 그걸 바랄걸세.”

마침내 1920년 그는 캐나다로 떠나는 귀향선에 올랐다. 사실상의 강제추방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뱃머리에서 나를 꺼내 들며 멀어지는 한국 땅의 풍경을 담았다. 잠시 후 내 몸에 그의 눈물이 닿았다. 고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을 잊지 않았던 스코필드는 강연과 언론 기고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에 놓인 한국의 현실을 알렸다. 마침내 그의 노력이 더해져 한국이 광복을 맞았을 때 그는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리고 1958년 한국으로 귀화한 그는 1970년 82세를 일기로 삶을 마치기까지 빈자와 학생들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펼쳤다. 그 결과 스코필드는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⁹⁾에 안장된 유일한 외국인으로 남을 수 있었다. 나는 지금도 그와 함께했던 시절들을 생각한다. 3·1 운동에 감탄하고, 수원 제암리의 가슴 아픈 현장을 담으며 가슴 아파하던 스코필드와 함께한 시절이 없었다면 나는 그저 평범하고 낯은 사진기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무렵 스코필드와 함께였던 나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귀한 사진기가 될 수 있었다.

9)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는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의병 활동과 독립투쟁을 펼쳤던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212위가 안치돼있다.

스코필드 박사 짧게 들여다보기

|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가 남긴 마지막 유언 |

“내가 죽거든 한국 땅에 묻어주시오. 그리고 내가 보살피던 아이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시오.”



스코필드 박사 | Frank William Schofield 1889 ~ 1970 |

영국에서 태어나 18세 때 캐나다로 건너간 스코필드 박사는 1916년 의료 선교사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이후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면서 그는 푸른 눈의 조선인으로서 삶을 살게 된다. 1919년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물론 항일운동을 벌이던 마을주민 23명이 무참히 희생된 '수원 제암리 학살사건'을 세계에 알리는 등 우리 독립운동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일들을 전개했다. 1920년 일제의 여러 경로를 거친 압력으로 캐나다로 강제 출국당하 다시피 한 스코필드 박사는 고국에서도 일제 식민통치의 잔혹함과 한국의 독립 의지를 알려 나갔다. 광복 후에는 한국으로 귀화해 소외된 자들과 학생들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에 헌신하다가 1970년 4월 12일 82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했다. 1968년 정부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생애를 바친 스코필드 박사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우리가 기억하세요!

내가 그린 '스코필드 박사'

“스코필드 박사님이 제암리 학살사건의 참혹한 현장을 사진에 담지 않았다면 일제의 잔인한 범죄가 숨겨지고 말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스코필드 박사님이 사진을 찍는 순간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림/글 경남 밀양 밀양중학교 3학년
강민서

Chapter 2

뽐혀진 손톱



이신애 지사를 말하다

이신애 지사를 말하다

일제의 주재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

1920년 11월 28일 이신애와 동지들은 종로 안국동 광장에서 준비해 온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뿌리며 큰 목소리로 독립만세를 외쳤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광장 앞에 일제의 주재소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일제의 압제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기 위한 시위였다. 모두는 일제 경찰의 가혹한 진압 속에 체포되고 말았다. 이신애는 체포되어 입이 막히는 순간까지도 독립만세를 외쳤다.

반성이 필요한 것은 오히려 너희들이다

“너희는 결코 독립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한다면 너는 풀어줄 수도 있어. 잘 생각해보라고.”

“반성이 필요한 건 우리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남의 나라를 강제로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함부로 가두고 죽이는 너희들이야말로 참으로 야만스런 민족이 아닌가?”

“듣던 대로 독하군. 좋아, 지금부터 말로 하지 않겠다. 어디 얼마나 견디나 두고 보지.”

형무소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

형무소를 지키던 경찰들이 난데없는 만세 소동에 놀라 몽둥이를 든 채 달려왔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빠른 건 만세를 이어나가는 수감자들의 목소리였다. 어느새 삼천 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외치는 ‘대한독립만세’가 형무소 담을 넘어 바깥으로까지 퍼져갔다.

뽑혀진 손톱



나는 손톱이다. 엄지손가락 끝에 달린 채 끝도 없이 자라날 줄 알았던 손톱이다. 하지만 나는 느닷없이 손가락을 잃었다. 더 정확하게는 내 주인의 몸으로부터 완벽하게 멀어졌다. 나는 억울했다. 하지만 더 억울한 건 내가 아니라 내 주인인지 모른다. 내 주인의 이름은 이신애다.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안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라면 뭐든지 말할 수 있다. 한때 나는 그녀의 일부였으니까. 사람들은 손톱 따위에는 기억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의 모든 것을 기억하며 자란다. 매번 잘려나가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우리는 떠나기 전 모든 기억을 남아있는 손톱에 고스란히 물려준다. 그렇게 우리 손톱의 기억은 이어진다. 그녀와 관련한 1918년의 기억도 나는 잊지 않았다. 그 무렵 원산 루씨여학교(樓氏女學校) 두남리 분교의 교사로 일하던 이신애는 부흥회에 참가했다가 어느 독립운동가의 설교를 듣게 됐다.



“결코, 독립의 꿈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마저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떨쳐 일어서야 합니다.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도 죄악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정의를 위해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입니다.”

설교를 들던 그 날 이신에는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손 엄지에서 자라던 나를 자꾸만 만지작거렸다. 흥분하거나 감동을 하면 나오는 그녀만의 손버릇이었다. 그날 나는 그녀의 삶이 바뀌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했고, 그 예감은 적중했다. 그해 12월 학교에 사직서를 낸 그녀는 서울로 가는 차에 올랐다.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1919년 3월 1일 탑골 공원에 모인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해주사람 정재용¹⁾이 뜨거운 어조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가 읽어가는 한 줄 한 줄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었다. 그중에는 이신애도 있었다. 마침내 정재용이 낭독을 마쳤을 때 장내의 침묵을 걷어내는 한줄기 외침이 들렸다.

“대한독립만세!”

그 소리가 우리와 같은 소리로 바뀌는 데는 불과 십여 초도 걸리지 않았다. 모두 만세를 외치며 가슴에 숨겨뒀던 태극기를 꺼내 흔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만세와 태극기의 물결이 탑골 공원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 곳곳으로 나뉘어 흘러갔다. 행렬의 맨 앞에 섰던 이신애는 그 벽찬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한 일제의 가혹한 진압이 잇따랐지만 대열에서 이탈하는 이들은 없었다. 어린 학생들과 연약한 부녀자들조차 군홧발에 짓밟히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다. 앞장섰던 이신애 역시 갖은 봉변을 당했지만 하늘이 도운 탓인지 검거만은 피할 수 있었다. 그날 그녀가 혹시라도 일제 경찰에 잡힐까 봐 내가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그녀는 알지 못한다.

“반갑소. 나 강우규²⁾요.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겠소?”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 이렇게 작은 힘이라도 보탬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모두 위험에 빠지게 될 거요. 이신애 선생이라고 했던가요. 각오는 되어 있겠죠?”

1) 정재용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여 3·1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한 해주 출생의 지사.

2) 강우규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 1919년 조선총독부 총독으로 부임해 온 사이토 마코토를 저격하였으나 폭탄이 다른 데로 떨어져 거사에 실패하였다. 1920년 11월 서대문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했다.



“여기 이신애 동지는 비록 여자지만 그 의지가 누구보다 대단합니다.”

“참으로 든든하오. 나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사이토를 해치우겠소. 그게 내가 당신들에게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소.”

“보답은요. 우리 민족을 위해 위험을 마다치 않는 선생님께 우리가 도리어 부끄럽지요.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씀만 하세요.”

언제나 이런 식이다. 늘 위험한 일을 벌이면서도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신애가 만난 강우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그러나 겉모습과는 달리 그는 새로 조선에 부임하는 사이토 마코토 총독³⁾을 노리는 의협심 강한 사내였다. 그것도 러시아에서 사들인 폭탄으로 한 번에 총독을 날려버린다는 계획이

3) **사이토 마코토** 1919년 8월 12일 제3대 조선총독으로 임명된 해군대장 출신의 일본 정치가. 1936년 2·26 군사반란으로 암살될 때까지 일본의 군국화를 앞장서 이끈 동아시아 침략전쟁의 주범이었다

었다. 이신애는 동지인 한기동과 함께 그런 강우규를 수차례 만나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나는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에게 해가 갈까 봐 불안했다.

1919년 9월 2일 오후 5시, 이신애는 환영 인파 속에 있었다. 남대문 역에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나타나고 나서야 나는 이신애가 왜 이곳에 왔는지 알 수 있었다. 두루마기 차림의 촌로로 위장한 강우규의 모습도 보였다. 때마침 사이토 총독의 도착을 알리는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잠시 후 기차에서 내려 마차로 갈아탄 사이토가 출발하려는 순간 강우규가 힘껏 폭탄을 던졌다. 그러나 폭탄은 사이토의 마차에 미치지 못했다. 폭탄이 터지면서 거사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지만 사이토 총독을 태운 마차는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강우규 역시 현장을 무사히 빠져나갔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신애는 총독 암살이 실패로 끝난 것은 아쉬워하면서도 강우규가 잡히지 않은 것에는 안도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운은 거기까지였다.

“이신애 동지! 강우규 선생이 오늘 친일경찰 김태석⁴⁾에게 체포되고 말았소.”
“선생께서 한 번 더 거사를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끝내 이루지 못하셨군요.”
“동지도 조심하시오. 우리 존재가 드러나는 것도 시간문제일 거요.”

이번에도 내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그녀는 개의치 않는 듯했다. 도무지 말릴 수 없는 사람이었다.

1919년 10월 이신애는 독립운동단체인 조선민족대동단⁵⁾에 들어갔다. 이신애는 그곳에서 격문, 호소문, 기관지 등의 작성을 도우며 땀을 쏟았다. 발각되

4) 김태석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친일경찰. 김태석은 밀정을 이용하여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또한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에게 잔인한 고문을 가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5) 조선민족대동단 1919년 3월말 서울에서 조직된 비밀 항일 결사 조직으로 의친왕 이강을 상해로 탈출 시키려는 거사를 기도했으나 관련자가 붙잡히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면 위협해질 수 있는 그 일에 이신애는 아무렇지도 않게 매달렸다. 그 때문에 그 무렵 내 몸에는 늘 검은 잉크 자국이 묻어 있었다.

“이신애 동지. 하나 묻고 싶소. 당신은 독립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소?”

“얼마든지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해주세요.”

“두 가지 큰일이 있소. 그 하나는 의친왕⁶⁾의 상하이 망명을 추진하는 것이요.”

“의친왕이라면 고종의 다섯 번째 아드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소. 의친왕을 상하이⁷⁾로 탈출시켜 그곳에서 그분이 우리 독립운동의 중심점이 되도록 할 생각이요.”

“또 하나는요?”

“3·1 독립운동에 이어 우리의 독립 의지를 한 번 더 만방에 떨칠 만세운동을 계획 중이요. 우리 주도하에 민족대표를 구성해 독립선언서를 만들 텐데 물론 그 자체로 위험한 일이지만 이 동지가 여성대표의 자격으로 서명할 수 있겠소?”

대답도 하기 전에 나는 그녀가 그 힘든 일을 맡겠다고 나설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그녀는 계속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손 엄지에 붙은 나를 만지작거렸던 것이다. 이신애는 또 열망에 타오르고 있었다.

“미약한 제가 쓰일 수 있다면 오히려 다행이지요. 독립선언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분들도 제가 책임지고 포섭하겠습니다.”

6) 의친왕 조선 말기의 왕족으로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뒤 상하이 임시 정부로의 탈출을 계획하다 발각되어 일제에 의해 강제로 본국에 송환되었다. 그뒤 여러 차례 일제로부터 도일을 강요받았으나 끝내 거부하여 항일의 기개를 굽히지 않았다.

7) 상하이 한국 한자 독음인 상해로 더 잘 알려진 도시. 현재 중국의 주요 산업·상업의 중심지로 과거 일제 강점기 당시 일제의 영향력이 덜 미쳤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공사관이 있어 외교 활동을 전개하기에 편리한 점을 고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곳이기도 하다.



“고맙소.”

이신애는 그 길로 사람들을 만나러 나섰다. 독립의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포섭하는 일은 목숨을 내놓는 일과 다름없었다. 혹시라도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신애를 불령선인⁸⁾으로 고발할 수도 있었다. 실로 이신애는 거침이 없었다. 그러나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비밀리에 추진한 상하이 망명계획이 발각돼 의친왕 일행과 대동단 단원이 만주 안동역에서 체포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결국, 이 일은 대동단 단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선봉으로 번졌다.

“이 동지! 대부분의 동지가 왜놈들에게 걸려들었소. 앞으로 어찌하면 좋겠소?”

8) 불령선인 일제가 자기네 말을 따르지 않는 한국 사람을 이르던 말로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 사람이라는 뜻.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요. 우리끼리라도 뜻있는 인사들을 모아 독립만세 시위를 펼쳐야 합니다.”

“알겠소. 그러면 나도 당장 사람들을 만나보겠소”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는 제가 준비해보겠습니다. 부디 몸조심하세요.”

“이 동지도 조심하시오.”

마침내 1919년 11월 28일 이신애와 동지들은 종로 안국동 광장에서 준비해 온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뿌리며 큰 목소리로 독립만세를 외쳤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광장 앞에 일제의 주재소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모두 불덩이를 지고 화약고에 들어간 셈이었다. 일제의 압제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기 위한 시위였다. 모두는 경찰의 가혹한 진압 속에 체포되고 말았다. 이신애는 체포되어 입이 막히는 순간까지도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신애, 넌 왜 독립만세를 외친 건가? 만세를 외치면 독립이 될 거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건가?”

“독립만세를 부른다고 해서 곧바로 독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역시 알고 있었소. 하지만 만세를 불러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분명 우리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독립을 이룰 것으로 생각했소.”

“닥쳐. 너희는 결코 독립할 수 없다. 어림도 없는 소리지.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한다면 너는 풀어줄 수도 있어. 잘 생각해보라고.”

“반성이 필요한 건 우리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남의 나라를 강제로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함부로 가두고 죽이는 너희들이야말로 참으로 야만스런 민족이 아닌가?”

“듣던 대로 독하군. 말이 안 통해. 좋아, 지금부터 말로 하지 않겠다. 어디 얼마나 견디나 두고 보지.”

그 말과 동시에 심문하고 있던 일제 경찰의 주먹이 이신애 지사의 얼굴로 날아들었다. 그녀가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그의 주먹은 멈춰지지 않았다. 주먹뿐만



이 아니었다. 경찰은 온갖 고문을 그녀에게 자행했다. 서대문 형무소⁹⁾로 옮겨진 후에도 그들의 고문은 계속됐다. 그러나 이신에는 언제나 의연하게 버텼다.

고달픈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그녀는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형무소에서 유관순¹⁰⁾과 뜻을 모아 3·1 운동 1주년을 기념해 옥중에서 만세운동을 펼칠 계획을 짜기에 이르렀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았다.

“관순아! 괜찮겠어? 이 일을 벌이고 나면 저들은 결코 우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걱정 마세요. 다 각오한 일이에요.”

“난 괜찮지만 어린 네가 걱정이구나.”

“신에 언니! 독립운동하는데 나이가 적고 많음이 무슨 상관이에요. 언니, 괜히 저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9) 서대문형무소 을사늑약 이후 국권 침탈을 시작한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시설.

10) 유관순 1919년에 일어난 3·1 독립만세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뒤 계속된 고문과 영양실조로 인해 1920년 9월 28일 19세의 나이로 순국하였다.



“그래, 우리가 결코 저들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사실을 똑바로 보여주자.”

“네, 언니!”

마침내 3월 1일이 왔다. 약속한 2시가 되자 유관순이 먼저 ‘대한독립만세’를 크게 외쳤다. 그것을 신호로 이신애, 어윤희, 박인덕 등도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형무소를 지키던 경찰들이 난데없는 만세 소동에 놀라 몽둥이를 든 채 달려왔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빠른 건 만세를 이어나가는 수감자들의 목소리였다. 어느새 삼천 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외치는 ‘대한독립만세’가 형무소 담을 넘어 바깥으로까지 퍼져갔다. 형무소에서 울려 퍼지는 만세 함성을 듣고 모여든 인파 때문에 전차 통행이 마비되고 경찰 기마대가 출동했을 정도다. 그 순간 형무소 안에서는 상상도 못 할 폭력이 자행되고 있었다. 일제 경찰은 만세 소리가 나는 감방을 찾아 닥치는 대로 몽둥이를 휘둘렀다. 그들의 몽둥이가 닿을 때마다 수감자들의 피가 튀고 살점이 찢겼다. 감방의 수감자들은 쓰러지면서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군홧발이 그들을 짓밟는 순간에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다. 형무소안의 모든 경찰이 총출동하고 난 후에야 수감자들이 외치는 만세 소리가 찾아들었다. 경찰은 주동자들을 따로 불러냈다. 물론 그녀도 포함됐다.

“이신애, 이 독한 것. 너하고 유관순이 이번 만세운동을 주도한 걸 다 알고 있어. 각오는 했겠지?”

“내 입으로 내 나라 독립을 외치는 게 뭐가 잘못된 일이나?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너희들은 대체 뭐가 무서운 것이냐?”

쏘아보는 듯한 이신애의 눈과 마주친 경찰은 순간 고개를 돌리며 소리를 질렀다.

“이봐, 이것들 당장 지하감옥에 가둬버려. 앞으로 기대해도 좋을 거야. 고통이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차마 지켜볼 수 없는 잔인한 고문이 그녀들을 괴롭혔다. 온몸을 몽둥이로 때렸고, 그것도 모자라 전기고문과 고춧가루를 탄 물고문을 가했다. 내가 이신애의 손가락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도 고문 탓이다. 일제의 고문기술자는 억지로 이신애의 손가락에서 나를 뽑아버린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봉변이었다. 지하 고문실 구석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진 나는 툭툭히 보았다. 그 처참하고 가슴 아픈 현장을.

이신애를 보지 못한 지 벌써 구십몇 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씩지도 않은 채 서대문 형무소의 구석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당시 나는 일제 경찰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이신애가 3년 8개월간의 복역을 마치고 형무소를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실 그때는 이신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렇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위험한 일에 그녀가 매달렸는지를.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니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꼭 가야 할 길이라면 아무리 고달프고 험난한 길이라고 해도 가는 것이 사람의 길이라는 것을. 꽃다운 나이의 처녀 이신애가 걸었던 독립의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었다.

이신애 애국지사 짧게 들여다보기

| 독립만세를 외친 이유를 묻는 일제 경찰의 질문에 대한 이신애 지사의 답변 |

“독립만세를 부른다고 해서 곧바로 독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역시 알고 있었소. 하지만 만세를 불러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분명 우리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독립을 이룰 것으로 생각했소.”



이신애 애국지사 | 1891.1 ~ 1982.9 |

평안북도 구성 출신으로 일찍부터 근대교육을 받은 이신애 지사는 루씨여학교 두산리 분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다. 이곳에서 독립운동에 눈뜬 이신애 지사는 1919년 9월 서울로 올라와 대동단에 가입하였다. 대동단은 1919년 10월 의친왕 이강의 상하이 망명을 추진하다 종로경찰서의 수사망에 걸려 위기를 겪는다. 간신히 체포를 면한 이신애 지사는 대동단 지도부에서 계획한 제2차 독립선언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 33명의 동지와 함께 여성 대표의 자격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다. 이후 같은 해 11월 28일 이신애 지사와 대동단 단원은 안국동 광장에서 만세운동을 펼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다. 1920년 3월 1일 옥중에서 이신애 지사는 3·1 운동 1주년을 맞아 같은 동에 갇혀 있던 유관순 열사 등과 함께 옥중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했다는 이유로 일제 경찰의 심한 고문을 받았다. 이후 이신애 지사는 경성지방법원에서 4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 3년 8개월 복역 끝에 출감했다. 1963년 대한민국 정부는 이신애 지사의 독립운동을 인정해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다.

우리가 기억하세요!

내가 그린 '이신애 지사'

“바로 앞에 일제 경찰의 주재소가 있는 곳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친 이신애 지사의 용기에 정말 감동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며 독립 만세를 외쳤을 이신애 여사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림/글 경기도 과천 과천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다미

Chapter 3

떼어진 계급장



몽클라르 중령을 말하다

몽클라르 중령을 말하다

계급을 낮춰도 좋다

“중령이라도 좋습니다. 유엔군으로 참전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면 계급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장군, 그건 불명예스러운 강등이나 다름없소. 중장으로 예편한 당신의 계급을 어찌 중령으로 낮출 수 있겠소.”

“내게 중요한 것은 계급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일 뿐입니다. 싸울 수 있는 자격을 주십시오.”

우리는 후퇴를 배운 적이 없다

“이곳 지평리는 아주 중요한 곳이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이곳을 지켜내야 하오.”

“걱정 마십시오. 나와 우리 프랑스 병사들은 후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은 버린 적이 없다

“한국을 떠나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시면 제대하시는 거죠?”

“그렇겠죠. 내 인생의 두 번째 제대가 되는 셈이군요.”

“후회는 없으십니까? 장군의 계급장까지 떼어내며 싸우셨잖아요.”

“없습니다. 계급은 낮쳤지만, 대신 자유와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내 신념은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내가 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단 한마디였다.

“어이가 없네.”

누구보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던 그였다. 그러나 그는 명예의 상징인 나를 한 순간에 버렸다. 나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중령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왔습니다. 유엔군으로 참전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계급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장군, 하지만 그건 불명예스러운 일ियो. 강등¹⁾이나 다름없소. 중장으로 예편한 당신의 계급을 어찌 중령으로 낮출 수 있겠소.”

“군인인 내게 중요한 것은 계급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일 뿐입니다. 제게 싸울 수 있는 자격을 주십시오.”

“그래요. 다 좋다고 칩시다. 장군의 나이는 어떡할 거요. 육십이 가까운 나이에 어떻게 싸운단 말입니까?”

“자유를 지키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난 군인입니다. 죽어도 전장에서 죽고 싶습니다.”

1) 강등 군인의 계급을 낮춤



그의 고집은 마침내 수뇌부²⁾를 움직였다. 그의 이름은 몽클라르였다. 사람들은 그를 몽클라르 장군이라고 불렀다. 1·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숭한 승리를 이끈 공으로 각종 무공훈장³⁾을 받았던 그는 프랑스의 전쟁영웅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빛나는 중장 계급장이었다. 나는 평생 전쟁터를 누빈 그의 상징이었고 또한 명예였다. 그러나 그는 나를 버리려 하는 것이다.

“장군, 결정을 반복할 순 없겠습니까?”

“이미 상부의 허락이 떨어졌네.”

“장군, 왜 스스로 굴욕을 자초하십니까?”

“알다시피 한국에 파견되는 전투부대는 대대급일세. 대대급 병력은 중령이 이끈다는 게 규정 아닌가, 그런데도 내가 중장이란 계급에 연연한다면 결코 지

2) 수뇌부 어떤 조직이나 단체, 기관 등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3) 무공훈장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휘관이 될 수 없다는 걸 모르나.”

“하지만 장군. 그렇게 선불리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중령으로 대대를 이끌게 되면 장군보다 나이 어린 미군 지휘관의 명령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이제야 제대로 된 내 편을 만났다. 자존심 강한 몽클라르 장군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말을 장군의 부하가 꺼낸 것이다.

“그 정도 각오도 없이 내가 참전하려 하겠나. 자네도 알다시피 난 평생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며 살아왔네. 이번에는 계급을 낮추더라도 자유를 지키겠다는 신념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내겐 명예이고 자존심일세. 더 이상은 날 말리지 말게나.”

나는 또 한 번 혼잣말을 뱉고 말았다.

“어이가 없네.”

그러나 신은 무심하지만은 않았다. 뜻밖에도 나를 지켜낼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의 아내가 나선 것이다.

“당신, 또다시 전쟁터로 간다고요?”

“그렇소.”

“당신이란 사람, 정말 무책임하군요.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하고요. 설마 이 아이를 아버지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은 건 아니겠지요?”

“그럴 리가 있겠소. 난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해 그곳에 가는 거요.”

“말도 안 돼. 아이를 위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위험한 곳에 갈 수 있죠?”

“나는 우리 아이에게 내가 최초의 유엔군으로 참전해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다는 긍지를 물려주고 싶소.”

“그까짓 궁지가 뭐가 중요해요. 그곳에서 당신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난 죽지 않소. 당신과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기필코 살아올 거요.
그러니 날 막지 마시오. 내게는 가족 말고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소.”

그의 아내는 눈물만 보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몽클라르가 다가가 그녀를 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는 누가 뭐래도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었다. 결국, 프랑스 대대의 지휘관이 된 그는 유엔군 소속으로 한국 전선에 투입됐다. 다행히 그는 나를 자기 방 책상에 넣어두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다. 나도 그의 물건 한쪽에 실려 그와 함께 한국으로 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어깨에는 내가 아닌 중령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내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 그가 이끄는 부대는 미 2사단 23연대에 배속⁴⁾됐다. 그는 이제 명령을 받으면 생과 사가 오가는 전장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한다. 나는 그때부터 또 다른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그의 나이는 벌써 58세였다. 결코, 험기 넘치는 나이는 아니었다. 더군다나 백전노장의 경험을 쌓는 동안 여러 번의 상처를 입었던 그는 다리마저 절고 있었다. 이제 전쟁터는 그에게 과거보다 더 위험한 곳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마조마한 내 마음과 달리 그는 이미 원주 부근 첫 전투에서 몰아치는 적을 막아내는 등 현지에서 빼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기는 곧 찾아왔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중국군의 대부대가 파죽지세⁵⁾로 몰려오면서 어느새 중령의 부대가 고립된 것이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 23연대를 이끄는 미군의 지휘관이 몽클라르 중령을 찾아왔다. 그는 무거운 얼굴로 입을 열었다.

“몽클라르 중령, 우리는 지금 중국군 예하⁶⁾ 3개 사단⁷⁾에 의해 완전히 고립됐소.”

4) 배속 사람을 어떤 집단 등에 배치하여 속하게 함.

5) 파죽지세 대나무의 한끝을 갈라 내리 쏘개듯 거침없이 적을 물리치며 진군하는 기세를 이르는 말.

6) 예하 부대나 지휘관에 딸림.

7) 사단 군대 편성의 한 단위로 군단의 아래이고 여단이나 연대의 위가 되는 부대.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포위망을 뚫고 철수할 생각이시요?”

나는 그 순간만큼은 그가 그렇다고 대답해주길 진심으로 원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역시 달랐다.

“그런 생각 한 적 없습니다. 나와 우리 프랑스 병사들은 끝까지 싸워 이곳을 지켜낼 생각입니다.”

“고맙소. 이곳 지평리는 아주 중요한 곳이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이곳을 지켜내야 하오.”

“걱정 마십시오. 나와 우리 프랑스 병사들은 후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좋소. 나는 북쪽에는 1대대⁸⁾를, 남쪽에는 2대대를, 그리고 동쪽에는 3대대를 배치할 생각이요. 알다시피 서쪽은 지형상 적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은 곳이요. 프랑스 대대가 서쪽을 맡아줄 수 있겠소?”

8) 대대 군대 편제상의 한 단위로 일반적으로 중령급의 장교에 의해서 지휘된다.

“위험이 있는 곳에 영광도 있는 법이지요. 우리가 서쪽을 지키겠습니다.”

“고맙소. 중령, 아니 몽클라르 장군.”

미군 지휘관은 몽클라르 중령에게 존경을 표하며 돌아갔다. 여전히 몽클라르는 태연했지만 나는 미군 지휘관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알다시피 서쪽은 지형상 적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은 곳ियो.’ 몽클라르는 왜 이런 위험을 자초하는 것인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침내 1951년 2월 13일 밤 10시 중국군의 공격이 시작됐다.

“놈들이 몰려옵니다.”

엄청난 수의 중국군이 일제히 피리와 나팔을 불며 몰려왔다. 그 요란한 소리에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겁먹지 마라. 우리도 어서 사이렌을 울려라.”

손으로 돌리면 괴성이 나오는 사이렌은 몽클라르 장군이 중국군의 기세를 꺾기 위해 쓰는 무기 아닌 무기였다. 고막이 터질 것 같은 전장의 소음 속에서도 프랑스군은 물밀듯 밀려오는 중국군을 향해 설 새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악귀처럼 달려드는 중국군은 어느새 진지 앞까지 숨소리를 뺏고 있었다. 순간 몽클라르가 외쳤다.

“모두 백병전⁹⁾을 준비해라. 우리는 오늘 목숨을 걸고 이곳을 지켜야 한다.”

병사들은 어느새 철모를 벗고 붉은 수건으로 질끈 머리를 동여맸다. 총검을 앞세우며 일어나는 그들의 눈에 두려움은 보이지 않았다. 몽클라르도 그들과

9) 백병전 몸을 맞닿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창, 칼, 총검 등을 가지고 양편이 서로 맞붙어서 벌이는 전투.



함께했다. 진지 안으로 중국군이 하나둘 뛰어들어왔다. 병사들은 총검¹⁰과 개머리판¹¹을 휘두르며 중국군과 맞섰다. 철후 같은 밤 솟아오른 조명탄¹²이 솟아오를 때마다 프랑스 병사들의 붉은 수건이 온통 핏빛처럼 번지면서 중국군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싸울 용기를 잃어버린 다수의 무리는 절연한 의지의 소수를 당해낼 수 없는 법이다. 주춤주춤 밀리던 중국군은 이제 달아나기에 바쁘다.

“대대장님! 적들이 도망갑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겼다. 모두 장하다.”

숫자로만 본다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그가 이겨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방심하지 않았다.

“분명 저들은 또 몰려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이길 것이다. 오늘처럼 적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 근접사격으로 적을 물리치면 된다. 만약 적이 눈앞까지 들어오면 백병전으로 맞서면 된다.”

그의 말대로 중국군은 다시 몰려왔다. 더 많은 숫자였다. 그들이 내는 흙먼지가 사망에 가득했다. 그러나 병사들은 몽클라르의 말대로 중국군이 근접하기까지 기다렸다. 마침내 적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프랑스 병사들의 방아쇠가 일제히 당겨졌다. 수없이 많은 중국군이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다. 그러나 그 자리를 다시 다른 중국군이 채웠다. 마침내 함성을 지르며 쳐들어오는 중국군의 벌어진 치아가 보일 정도로 거리가 좁혀졌다.

“지금이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죽고, 또 여기서 산다.”

10) 총검 소총의 총신 끝에 부착하여 백병전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칼.

11) 개머리판 총의 밀동을 이르며,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넓적하게 만들어 사격할 때 어깨에 받치는 데 씀.

12) 조명탄 밤에 밝게 비춰 적을 관측하거나 사격 조정 또는 특정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탄약.

몽클라르 중령의 명령이 떨어진 순간 총검을 착용한 프랑스 병사들이 중국군을 향해 비호처럼 달려들었다. 어제처럼 몽클라르도 함께였다. 어둠 속에서도 희번덕거리는 병사들의 눈은 집요하게 적을 누르고 있었다. 수없이 찌르고, 베고, 찌으며 적과 아군 할 것 없이 모두 선명한 핏자국을 몸과 마음에 새겨가고 있었다. 한쪽이 포기하지 않으면 도무지 멈춰지지 않을 것 같은 살육의 현장에서 먼저 기가 죽은 것은 중국군이였다. 그들은 수많은 시체를 남긴 채 물러갔다. 물러가는 중국군을 향해 미군 폭격기들이 기다렸다는 듯 포탄을 쏟아부었다.

“몽클라르 중령. 완벽한 승리요. 당신과 당신의 병사들이 열심히 싸워준 공입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지요. 23연대¹³⁾이름으로 함께 싸울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겸손했다.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지평리 전투에서 미 23연대와 함께 이룬 공은 놀라운 것이었다. 1951년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개된 지평리 전투에서 미2사단 제23연대의 일원으로 참전한 그는 중국군 5만여 명의 파상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 지평리 전투에서의 승리는 유엔군이 전세를 역전시키며 재반격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낸 역사적인 승리로 기록됐다. 이후에도 그와 프랑스 대대는 최일선에서 전투를 치르며 숱한 승리를 일궈냈다. 화천 저수지 전투, 쌍 터널 전투, 단장의 능선 전투, 화살머리 고지전투 등에서 그가 이끈 프랑스 대대는 최강의 전투력을 발휘하며 적에게 극심한 공포를 안겼다.

“한국을 떠나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시면 제대하시는 거죠?”

“그렇겠죠. 내 인생의 두 번째 제대가 되는 셈이군요.”

13) 연대 군대 편제 단위의 하나로 사단의 아래, 대대의 위로서, 3개 대대로 편성된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장군의 계급장까지 떼어내며 싸우셨잖아요.”

“없습니다. 계급은 낮쳤지만, 대신 자유와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내 신념은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고국으로 돌아가시면 뭘 하실 겁니까?”

“이제 아내와 딸 아이를 지켜야지요. 난 아직 아이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답니다. 참 무심한 아버지죠. 아내와 아이가 이런 나를 용서해줬으면 좋겠네요.”

1951년 12월 지휘권을 인계한 몽클라르 중령은 수송선 ‘제너럴 블랙호’에 몸을 실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가 지키려 했던 한국땅은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었다. 평생을 두려움 없는 군인으로 살아온 몽클라르의 눈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다. 그 눈물은 미련이나 아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이 지키고자 한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던졌던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다. 나는 그 제서야 나를 떼어낸 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몽클라르 짧게 들여다보기

| 한국을 떠나는 감회를 담은 몽클라르 중령의 수기 중에서 |

수송선 ‘제너럴 블랙호’에 몸을 실은 병사들은 제2의 조국이 되다시피 한 한국땅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 땅에서 맺었던 인연들을 뒤로 하고 또 미군 부대 형제들과도 작별을 고했다. 그리고 우리 전투병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본부중대 위생병들에게서도 멀어졌다. 또 우리가 지키려 했던 한국의 사람들과도 아쉬운 작별의 정을 나눴다.



몽클라르 중령 | 1892.2 ~ 1964.6 |

제1·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하며 각종 무공훈장을 받은 몽클라르 중령은 육군 중장으로 전역했으나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자신의 계급을 스스로 낮춰 중령 계급장을 달고 프랑스 대대를 지휘했다. 특히 1951년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평리 전투에서 미2사단 제23연대의 일원으로 참전해 중국군 5만여 명의 파상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고, 이를 통해 유엔군은 재반격의 계기를 만들었다. 몽클라르 중령은 1951년 12월 지휘권을 인계하고 귀국했지만, 프랑스대대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당시까지 한국에서 전투를 계속했다. 몽클라르가 1964년 세상을 떠났을 때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군사박물관인 앵발리드에서 열린 장례식을 직접 주관, 예우를 표시했다. 몽클라르는 생전 자신의 마지막 전장이었던 한국을 잊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우리가 기억하세요!

내가 그린 '몽클라르 중령'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원한 몽클라르 중령의 이야기에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림/글 전북 전주 중앙중학교 2학년

한 남 경

Chapter 4

단검



김옥상 일병을 말하다

김옥상 일병 말하다

중국군이 개입하다

“중국군이 개입했대.”

“중국군?”

“이놈들이 밤이면 나팔을 불고 팽과리를 치면서 끝도 없이 밀려드는데 그 수가 엄청나다.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대. 죽어도 죽어도 또 오니 말이야.”

중국군에게 발각되다

순간 중국군의 입이 열렸다.

“여기 국군이다.”

그 말을 신호로 중국군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갑자기 수십 개의 눈이 한꺼번에 김옥상을 향해 달려들듯 노려봤다. 도망갈 것인가.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 도망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제야 김옥상의 두려움은 현실이 됐다.

삼십 대 일의 싸움이 끝나다

김옥상 역시 그대로 쓰러졌다. 그가 벌인 삼십 대 일의 싸움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는 죽었지만 중국군의 승리라고 말할 수 없는 싸움이였다. 소대 병력 서른 명의 중국군 중 몸이 멀쩡한 이는 네다섯 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김옥상과 싸우는 도중 죽거나 다쳤다.



천장의 둥근 유리 지붕 안으로 햇살이 들어온다. 마치 마법에서 풀려나기라도 한 것처럼 지난 밤 어둠 속에 숨겨졌던 모든 사물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났다. 나 역시 날카로우면서도 날렵한 자태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하루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온 것이다. 이 시간이 되면 답답한 박물관의 공기마저 달라지는 것 같다. 나는 눈을 감고 꽤나 낭만적으로 이 시간을 즐겼다.

“저이는 전쟁에서 적군을 많이 죽였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이에요?”

“맞아.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더라.”

“좀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이 박물관에 오는 동안 사람들이 저이의 몸에서 죽음의 흔적을 모두 지워서 그래.”

나의 달콤한 아침을 방해하는 것들, 그러나 내버려 두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 따위는 신경 쓰지 말자는 게 내 신조다. 단지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한 사람의 처절한 기록만 생각하며 난 살아왔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옥상이다. 다른 이들은 그를 김옥상 일병이라고 불렀다.

“0120358, 뭔가 느낌이 좋은데.”

“야, 김옥상. 너는 군번 받은 게 그리 좋으냐. 우린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전 쟁터에 나가야 할 신세가 된 거라고.”

“그래서 좋아. 나 그렇게 멋진 놈은 아니지만 내 손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싶 었다.”

“너 같은 놈들이 적 앞에서는 제일 먼저 콩무니를 뺏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 무 큰 소리치지 마.”

자기 손으로 나라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하던 김옥상, 나는 그의 무기가 된 게 좋았다. 나는 겁쟁이 같은 사람은 딱 질색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단검으로 태 어난 내 운명 때문인지도 모른다. 불행히도 무기로 태어난 나의 존엄을 지키고 못 지키고는 전적으로 내가 아닌 나를 가진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다. 다행히 김옥상은 내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사내였다. 신병 교육을 마치고 제7사단 5 연대 소속으로 전쟁에 참전한 그는 첫 전투였던 영천전투에서 누구보다 용감히 싸웠다. 당시 국군은 초반 무기력하게 밀렸던 전세를 역전시키며 총반격에 나 서고 있었다. 그의 부대 역시 거침없이 적을 물리치며 연일 승전고를 울렸다. 마침내 10월 9일 그는 부대원들과 함께 38도선을 돌파하며 북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계속 이런 식으로만 가면 이 전쟁 빨리 끝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좋겠다. 그나저나 옥상아, 너는 전쟁 끝나면 뭐할 거냐?”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부터 모셔야지.”

“결혼은?”

“각시도 얻어야지, 애도 낳고.”

“자식, 남들 하는 건 다 하려고 하네. 난 네가 워낙 열심히니까 전쟁 끝나도 군에 남을 줄 알았다.”

“실은 그 생각도 하지 않은 건 아니야.”

“그런데?”



“좀 더 나중에 생각해보려고.”

“내가 보기에 넌 딱 군대 체질이야. 남아라, 남아.”

“우선 이 전쟁이나 끝나고 봐야지.”

김옥상 일병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기뻐다. 확실하진 않았지만 만약 전쟁이 끝나도 그가 군에 남는다면 나는 오래도록 그와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즈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느닷없이 중국군이 북한을 지원군을 자처하며 나타난 것이다.

“중국군이 개입했대.”

“중국군?”

“이놈들이 밤이면 나팔을 불고 팽과리를 치면서 끝도 없이 밀려드는데 그 수가

엄청나다는 거야.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대. 죽어도 죽어도 또 오니 말이야.”
“곧 있으면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중국군의 개입은 지금까지의 전황을 정반대로 바꾸어 놓았다. 북진을 계속 해나가던 국군과 유엔군은 모든 지역에서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김옥상 일병이 속한 7사단 5연대 역시 중국군의 개입으로 평안남도 개천으로 철수, 1950년 11월 1일부터 인근의 비호산 전투에 임하게 됐다. 비호산은 청천강 하류지역에 형성된 평야지대에서 제일 높은 고지인 동시에 청천강 후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나 다름없었다. 적에게 뺏길 경우 우리 군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결정적 지역이 바로 비호산이었다. 반드시 비호산을 지키라는 명령 속에 김옥상과 그의 부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군과의 뺏고 빼앗기는 고지쟁탈전을 벌여야 했다. 며칠째 벌어진 전투는 이미 산기슭 곳곳을 피로 물들여 놓은 상태였다.

“김일병, 우리 손실을 줄이려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적의 진지에 은밀히 접근해 적의 움직임과 병력을 파악해야 한다. 할 수 있겠나?”

“네, 걱정 마십시오. 즉시 수행하겠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조심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김옥상은 어깨에는 총을 메고 손에는 나를 든 채 적의 진지를 찾아 천천히 다가갔다. 숨소리마저 집어삼키며 은밀하게 다가가던 그는 긴장을 많이 했는지 자꾸만 땀을 흘렸다. 그 역시 쳐들어가거나 덤벼드는 적을 막아섰던 때는 많았지만 중국군의 진지를 몰래 살피기 위해 혼자 다가간 적은 없었다. 어디서 적이 발견될지 모를 상황 속에서 김옥상은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며 걸음을 옮겨 나갔다. 그러나 적의 진지에 닿기 전 김옥상은 너무 놀라 순간 정신을 잃을 뻔했다. 중국군이었다. 그것도 한 둘이 아닌 적어도 일개 소대 병력에 가까웠다. 옥상의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해갔다. 도무지 생각이란 걸 할 수 없었다.





아직 적은 옥상을 보지 못했지만 몸을 숨길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무언가 빨리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달아나기에도 이미 늦었다. 마침내 적 하나가 옥상의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아주 느리게,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린 중국군의 눈에 옥상이 보였다. 당황한 것은 중국군도 마찬가지다. 옥상과 눈이 마주친 중국군은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잠시 후 적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어렸다. 그의 머릿속에선 단박에 계산이 나왔을 것이다. '상대는 고작 한 명이다.' 순간 중국군의 입이 열렸다.

“여기 국군이다.”

그 말을 신호로 중국군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갑자기 수십 개의 눈이 한꺼번에 김옥상을 향해 달려들듯 노려봤다. 도망갈 것인가.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 도망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제야 김옥상의 두려움은 현실이 됐다. 그들과의 거리는 불과 3미터 남짓, 숨소리까지 느낄 수 있는 거리였다. 아무런 희망조차 떠올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은 오히려 옥상의 두려움을 무모할 정도의 용기로 바꿔놓고 있었다. 옥상은 나를 힘껏 움켜쥔 다음 적을 향해 달려들었다.

“다 덤벼, 이놈들아.”

바로 앞에 있던 세 명이 바람처럼 파고드는 옥상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착검¹⁾한 상태로 옥상을 찌르려 했다. 다행히 옥상과 내가 더 빨랐다. 김옥상의 강렬한 힘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무기로 변신시켰다. 눈 깜짝할 사이에 두 놈이 홀렁 뒤로 젖혀졌다. 그 순간 겁먹은 중국군 하나가 몸을 옆으로 빼내려 하는 것을 옥상은 놓치지 않았다. 번개처럼 나를 휘둘러 그마저 쓰러뜨렸다.

“적은 이 놈 하나다. 겁먹을 필요 없어.”

1) 착검 대검을 총 끝에 꽂음



뒤에 있던 여럿이 시끄럽게 소리쳤지만 정작 제대로 덤벼드는 적은 없었다. 빠른 속도로 틈 속을 파고드는 김옥상 앞에 중국군의 무리는 자연스럽게 원을 만들듯 퍼졌다. 서로의 발치가 닿을만한 거리에 있다 보니 그들은 총을 쓸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밖에서 보면 김옥상은 마치 독 안에 든 쥐처럼 보였지만 안에서 보면 오히려 양 떼에 둘러싸인 한 마리 사나운 늑대였다. 김옥상이 나를 휘두를 때마다 뒷걸음질 치는 적 때문에 그들의 포위망은 수시로 흐트러졌다. 그러나 나는 불안했다. 적의 수가 너무 많았다.

“후우우……”

옥상의 벌어진 입에서는 가쁜 숨소리가 새어 나왔다. 그때였다. 그가 앞을 보며 맹렬하게 칼을 휘두르는 사이 적의 총 끝에 꽃은 대검이 뒤에서 날아들었다.

“으.”

짧은 비명을 낸 옥상은 나를 쥔 채 그대로 몸을 돌려 적을 베었다. 달려들던 중국군은 신음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적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서너 명의 중국군이 착검한 총을 옥상을 향해 내질렀다. 옆으로 비껴서면서 간신히 공격을 피한 옥상이 중국군의 배에 나를 찌른 순간 적 하나가 개머리판으로 옥상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균형을 잃고만 옥상은 쓰러지면서 나를 놓치고 말았다. 나는 속이 탔다. 이제 김옥상은 맨주먹이 되어버린 것이다. 김옥상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중국군은 마음 놓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몸을 일으키며 날린 김옥상의 발길질에 가장 먼저 덤벼들었던 중국군 하나가 그대로 나가떨어졌다. 그러나 적의 공격은 계속됐다. 다시 나를 집어 들긴 했지만 그 혼자서 수십 명을 상대해야 하는 싸움은 이미 승패를 가름하고 있었다.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도 옥상은 물러서지 않고 버텼다. 경련이 일듯 팽팽해진 그의 근육과 힘줄 하나하나가 싸울 수 있는 모든 힘을 내고 있었다. 그러나 숨소리는 차츰 가빠졌고, 그의 몸에선 조금씩 힘이 빠져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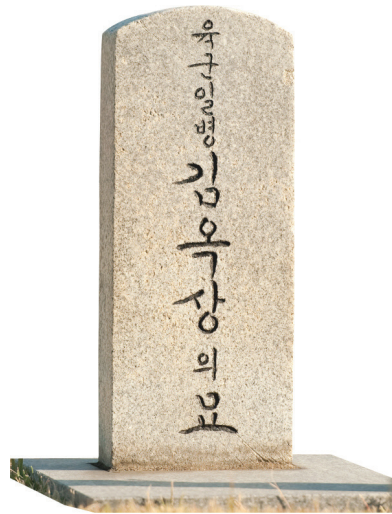
그는 여전히 중국군을 향해 나를 휘두르며 버티고 있었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힘은 없었다. 그때 중국군의 총검이 옥상의 배와 등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옥상의 손에 힘이 풀리면서 나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김옥상 역시 그대로 쓰러졌다. 그가 벌인 삼십 대 일의 싸움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는 죽었지만 중국군의 승리라고 말할 수 없는 싸움이였다. 소대 병력 서른 명의 중국군 중 몸이 멀쩡한 이는 네다섯 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김옥상과 싸우는 도중 죽거나 다쳤다. 기가 질리고만 중국군은 혹시라도 다시 살아날까 봐 두려웠는지 이미 쓰러진 김옥상 곁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22세 청년 김옥상은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오로지 조국을 위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1개 소대와 맞서 싸운 그의 희생이 알려지면서 당시 국군과 유엔군의 사기는 충천했다. 그 힘이 비호산 전투에

서의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냈다. 여기까지가 내가 기억하는 내 주인 김옥상 일병의 이야기다.

그날 영웅적으로 싸우다 세상을 마감한 그의 손을 떠났던 내가 이곳 박물관으로 온 지도 벌써 반 백 년이 넘었다. 그사이 세상은 많이 변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발전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잊어가고 있다. 한때 위기에 처했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쓰러져 갔는지를. 나는 늘 바란다. 가끔이라도 지금의 사람들이 그들을 기억해주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김옥상 일병 짧게 들여다보기



김옥상 일병 | 1928. 7 ~ 1950. 11 |

대구시 봉덕동에서 태어난 김옥상은 1950년 8월 24일 육군에 입대했다. 신병교육을 마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그는 국군과 중국군의 뺏고 빼앗기는 고지 쟁탈전이 계속되던 비호산에서 싸우게 된다. 1950년 11월 6일 오전 적의 움직임과 병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찰을 나갔던 김옥상 일병은 1개 소대의 중국군 병력과 맞닥뜨렸다. 22살이었던 김일병은 혼자서 결사적인 육박전을 전개해 다수의 적을 살상하고 장렬히 산화했다. 당시 중국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희생한 김일병의 장렬한 애국심은 아군의 사기를 크게 높여 비호산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1954년 6월 25일 정부는 김일병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다. 그의 유해는 1960년 5월 22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사병묘역 30-26326에 안장되었다.

우리가 기억하세요!

내가 그린 '김옥상 일병'

“혼자서 수십 명이나 되는 중국군 병력과 싸웠다는 게 제 마음에는 너무도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김옥상 일병 같은 영웅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처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살기 위해 도망치는 대신 끝까지 맞서 싸운 김옥상 일병의 용기와 애국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림/글 경기도 과천 과천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 다 미

Chapter 5

권총 두 자루



김상옥 의사를 말하다

김상옥 의사를 말하다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다

엄청난 폭발음과 동시에 비명이 들렸다. 순식간에 주머니에 폭탄을 꺼내 종로경찰서로 던진 것이다. 갑작스레 난리 통이 된 종로 거리를 김상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빠져나왔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는 일제의 끈질긴 추격을 받게 됐다.

수백 명의 일제 경찰들에게 포위되다

바깥에는 본정, 종로, 서대문, 동대문 등 서울 4대 경찰서가 모은 수백 명의 일제 경찰들이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상옥은 생각보다 담담한 표정으로 이불 속에서 우릴 집어 들었다. 그의 왼손에는 내가, 오른손에는 나의 의형제 동생인 브라우닝 9연발 권총이 들려져 있었다.

죽어서도 두려움이 되다

마침내 벽에 기대앉은 채 숨진 김상옥을 발견한 그들의 입에선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의 손엔 여전히 내가 쥐어져 있었고, 그의 몸에는 수십 발의 총상이 남아 있었다. 식민지 치하의 서울 한복판에서 수백 명의 일제 경찰과 대치해 세 시간이나 버티며 싸운 그는 죽어서도 그들의 두려움이 되었다.

권총 두 자루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죄의식을 느껴본 적은 없다. 내가 태어난 목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모젤 7연발 권총이다. 독일제 권총인 나는 주머니에 숨길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지만 성능이 좋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내 몸의 방어쇠는 이제 당겨지지 않는다. 낡거나 고장 나서가 아니다. 믿지 않겠지만 나는 오로지 내 의지로 작동을 멈췄다. 나 자신을 쇳덩어리로 만들고 만 것이다. 모든 것은 1923년 1월 22일 새벽 5시, 진눈깨비가 날리던 그 운명의 날에 결정됐다.

“김 동지! 어서 일어나세요. 놈들이 집을 포위한 것 같아요.”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를 듣자마자 김상옥이 번개처럼 몸을 일으켜 세웠다.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사건으로 일제 경찰의 끈질긴 추격을 받고 있던 김상옥은 동지 이해수의 집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도무지 뿔릴 구멍이 보이지

않는 위기의 장벽이 또다시 김상옥을 덮쳐왔다. 바깥에는 본정¹⁾, 종로, 서대문, 동대문 등 서울 4대 경찰서가 모은 수백 명의 일제²⁾경찰들이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상옥은 생각보다 담담한 표정으로 이불 속에서 우릴 집어 들었다. 그의 왼손에는 내가, 오른손에는 나의 의형제 동생인 브라우닝 9연발 권총이 들려져 있었다.

“여기 김상옥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왔다. 어서 나와.”

마당을 어지럽히는 발소리와 함께 놈들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모르는 척 이혜수가 마당으로 나서는 순간 그는 서고로 쓰는 쪽방으로 몸을 피했다. 겁이 나는지 밖에서 소리만 칠 뿐 방문을 열지 못하던 놈들이 이혜수의 가족을 위협해 문을 열게 했다. 방안은 비어 있었다. 놈들이 쪽방 쪽으로 눈을 돌리고 다가왔다. 쪽방 문을 여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 김상옥이 우리의 방아쇠를 당겼다. 문을 열었던 놈은 그대로 쓰러졌고, 나머지 놈들은 불에라도 덴 것처럼 황급히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김상옥은 쪽방 쪽에 있다. 모두 썰라.”

방을 빠져나왔던 놈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소릴 지르자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던 일제 경찰의 총구가 그대로 쪽방 쪽으로 돌려져 총탄을 쏟아부었다. 쪽방은 말 그대로 별집이 되고 말았다. 경성³⁾시내 한복판에 울려 퍼진 총의 곡소리는 아직은 김상옥의 것이 아니었다. 놈들의 총탄이 쏟아지기 전 그는 널빤지로 허술하게 만든 쪽방의 벽을 부수고 옆집 마당으로 나간 뒤였다. 하지만 담을 타다 바라본 김상옥의 처지는 독 안에 갇힌 쥐와도 같았다. 사방 곳곳에 타오르

1) 본정 일제강점기 시절 경성(서울)에서 가장 변화했던 충무로와 명동 일대를 말함.

2) 일제 '일본 제국주의의 준말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의 일본을 정치적, 경제적 지배권을 다룬 민족이나 국가에 확대하려고 했던 체제로 규정하여 이르던 말.

3) 경성 일제강점기 서울특별시의 옛 이름.



는 햇불 주변으로 그를 쫓는 이들의 장총이 번쩍거리고 있었다. 마치 효제동⁴⁾ 전체를 일제 경찰의 벽으로 두른 것 같았다. 할 수 없이 다시 담을 타고 내려온 김상옥이 이웃집 방문을 열었다. 주인에게 두꺼운 이불이라도 한 채 빌려 그것을 보호막 삼아 몸에 두르고 최후의 일전을 벌일 생각이었다. 불행히도 김상옥의 운은 좋지 않았다. 다급한 사정을 쏟아내는 김상옥의 부탁을 거절한 주인은 오히려 도둑이 들어왔다고 큰소리로 외치며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혹시라도 자신이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독립투사를 팔아먹고 만 것이다. 주인 의 소리를 들은 놈들이 속속 몰려들었다.

“김상옥, 다 끝났다. 어서 항복해라.”

항복을 권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그는 거친 숨소리만 내뿜은 채 아무 말이 없었다. 더는 기다리지 못한 놈들이 사방의 지붕 위로 올랐다. 높은 곳

4) 효제동 혁신단 시절의 동지 이혜수의 집이 있던 곳으로, 김상옥 의사의 생가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에서 그를 포위해 저격할 생각인 듯했다. 그러나 그가 쏜 탄알이 번번이 날아가 지붕 위에 발을 딛는 이들을 쓰러뜨렸다. 김상옥, 그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빛나가는 법이 없었다. 엄청난 수의 경찰이 단 한 명의 사내 김상옥 앞에서 철저히 무력해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사이 십여 명이 넘는 적을 쓰러뜨렸다. 그러나 그를 향해 날아오는 총알은 여전히 멈춰지지 않았다. 적들은 거의 무차별 난사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총알을 퍼부어댔다. 나와 브라운의 몸은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궈져 있었다. 그가 숨어 있는 집안엔 온통 총탄 자국이 가득했다. 가재도구도 모두 박살이 난 상태였다. 탄환이 스쳐 지나간 그의 몸에도 선명한 핏자국이 여기저기 꽃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김상옥은 몸을 숨길 곳을 찾는 눈치였지만 더는 움짱달씩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때 놈들이 무너진 벽을 통해 나타났다. 그가 다시 우리 몸의 방아쇠를 당겼다. 동시에 두 놈이 그대로 고꾸라졌다. 그 뒤를 따르던 무리는 겁을 먹었는지 순식간에 뒷걸음쳐 사라졌다. 그 틈을 타 방에서 나온 김상옥은 몸을 날려 마당의 변소로 들어갔다. 그곳도 안전한 곳은 아니었다. 다만 구석진 곳에 있어 약간의 시간은 별 수 있을 듯했다.

“이게 끝이겠군. 총알도, 나도.”

한숨처럼 내쉬는 그의 혼잣말에 하마터면 난 대답할 뻔했다. 김상옥은 마지막 탄알을 우리 몸에 재장전했다.

“김상옥, 지금 나오면 목숨만은 살려준다.”

또다시 투항을 권하는 놈들의 소리와 함께 한 떼의 무리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순간 변소 문을 열어젖힌 김상옥이 우리 몸의 방아쇠를 당겼다. 앞에 있던 몇 놈이 피하지 못한 채 쓰러졌고, 몇 놈은 상처를 입은 채 달아났다.

“남은 건 겨우 세 발, 결정할 때가 된 건가.”



그가 혼잣말을 내뱉는 순간 콩을 볶듯 요란한 소리가 쏟아졌다. 놈들이 무차별 난사를 가한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총알이 변소 흙벽에 박히는 사이 그의 몸에도 총알이 파고들었다. 이를 악다무는 그의 얼굴에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느껴졌다. 어느새 변소 벽에 기대던 그의 숨소리가 낮아지고 있었다. 김상옥의 손에서 브라우닝이 힘없이 떨어졌다. 마지막 힘을 내듯 서서히 날 올린 그는 총구를 적이 아닌 자신의 머리에 겨눴다. 나는 너무나 당황했다. 그가 멈추기를 바랐다. 그대로 방아쇠를 당긴다면 내가 그를 죽이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나를 거쳐 간 여러 사람 중 가장 사나다운 사람이었다. 아니 영웅이었다. 그러나 눈을 감은 그는 결국 내 몸의 방아쇠를 당겼다.

“정말 죽은 거 맞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에도 놈들은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다. 그가 다시 살아나 총을 쏠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을 휘감았기 때문이다. 오로지 혼자서 수백명과 맞선 그였다. 마침내 벽에 기대앉은 채 숨진 김상옥을 발견한 그들의 입에선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여전히 그의 손엔 내가 쥐어져 있었고, 그의 몸에는 수십 발의 총상이 남아 있었다. 식민지 치하의 서울 한복판에서 수백 명의 일제 경찰과 대치해 세 시간이나 버티며 싸운 그는 죽어서도 그들의 두려움이 되었다.

김상옥이 떠나고 난 후 죄책감에 시달린 나는 총으로서의 내 의미를 잃고 말았고 이후 그 누구도 나의 방아쇠를 당길 수 없게 됐다. 동생인 브라우닝 9연발 권총은 모든 것이 김상옥의 죽음으로 시작된 것이니 차라리 그 기억을 지우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기억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한때의 내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사로잡은 유일한 영웅이었기 때문이다. 총이 아닌 총이 되어버린 후 사람들은 나를 버렸다. 브라우닝과도 아주 오래전에 헤어져 소식마저 끊겼다. 어둠처럼 모든 것이 사라진 세월, 하지만 김상옥과 함께했던 시간만큼은 하나도 지우지 못하고 있다. 그의 숨소리, 말소리, 행동, 그 모든 게 여전히 또렷하다.

“바로 저곳이 그 악독한 종로경찰서⁵⁾군. 우리의 수많은 독립투사가 죽어서야 나가는 곳이라지. 좋아, 이번엔 네놈들이 죽어서 나가게 될 거다.”

그가 종로경찰서 앞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을 시켜먹은 뒤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 말이 역사의 한 부분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날은 1923년 1월 12일 오후 8시, 매서운 추위가 경성 거리를 휩쓸던 때다. 물론 무언가가 일어날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날 난 그의 품속에 들어 있었고, 그의 바지 주머니엔 폭탄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한번 터지고 나면 끝인 폭탄은

5) **종로경찰서** 일제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고문했던 장소로 일제의 식민통치와 무력을 대변했던 곳.





우리 총과는 달리 언제나 과묵하다. 말을 시켜도 대답하는 법이 없는 게 폭탄이다. 그러나 국밥을 다 비운 김상옥이 식당을 나와 경찰서로 천천히 다가가는 순간 분명 폭탄이 내게 말했다.

“안녕.”

너무도 짧은 그 인사를 들었을 때 나는 불안해졌다.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엄청난 폭발음과 동시에 비명이 들렸다. 순식간에 김상옥이 주머니에 폭탄을 꺼내 종로경찰서로 던진 것이다. 갑작스레 난리 통이 된 종로 거리를 김상옥은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빠져나왔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는 일제의 끈질긴 추적을 받게 됐다.

“이제 목표는 사이토 마코토⁶⁾이다.”

나와 브라우닝을 손질하며 그가 내뱉은 말이다. 우리 역시 사이토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3·1 운동 직후인 1919년에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는 당시 한국의 민족문화와 혼을 잃게 만드는 정책을 통해 식민지배를 강화하려 하고 있었다. 사이토를 저격하는 것은 김상옥에게 맡겨진 원래 임무이기도 했다. 김상옥은 사이토 총독이 1월 17일 서울역을 출발, 부산을 거쳐 일본으로 갈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가 우리와 함께 꾸밀 거사는 1월 17일 서울역에서 일어나야만 했다. 불과 5일 전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져 일제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김상옥이 숨어있는 곳은 삼판동(현 서울 용산구 후암동)고봉근의 집이었다. 고봉근은 그의 매부. 즉 누이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를 향한 포위망은 생각보다 빨리 좁혀지고 있었다.

“오빠. 내가 사는 집에 불령선인⁷⁾이 있는 것 같아요. 행색도 수상한데 권총까지 가지고 있는 눈치였어요.”

고봉근의 행랑채에 세 들어 살던 여자가 김상옥을 수상하게 여겨 종로경찰서에 근무하는 친정 오빠에게 밀고한 것이다. 일제 경찰은 그를 종로 경찰서 폭탄 투척의 범인이라 여기고 재빨리 움직였다. 1월 17일 새벽 3시 수사주임 미와의 주도 아래 20여 명의 무장경찰이 집을 포위한 채 들이닥쳤다. 순식간에 김상옥도 우리를 움켜쥔 채 방문 밖을 무섭게 응시하고 있었다. 종로경찰서의 유도 사범으로 있는 형사부장 다무라가 문고리를 잡으며 들어오려는 순간 김상옥이 내 몸의 방아쇠를 당겼다. 고꾸라진 다무라는 그 자리에서 숨을 놓았다.

- 6) 사이토 마코토 1919년 8월 12일 제3대 조선 총독으로 임명된 해군 대장 출신의 일본 정치가. 1936년 2·26 군사반란으로 암살될 때까지 일본의 군국화를 앞장서 이끈 동아시아 침략전쟁의 주범이었다
- 7) 불령선인 일제가 자기네 말을 따르지 않는 한국 사람을 이르던 말로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 사람이라는 뜻.



뒤따라 들어오려던 나머지 놈들도 모두 불을 뿜는 우리 앞에 쓰러졌다. 뜻밖의 기습에 허를 찔린 그들이 당황하는 사이 김상옥은 냅다 몸을 날려 담을 넘었다. 워낙 다급해 신발도 신지 못한 채였다. 눈발까지 날리는 겨울의 끽끔 얼어붙은 땅을 그는 맨발로 미친 듯이 달려야 했다. 개 짖는 소리와 일제 경찰들의 호각 소리가 경성의 밤에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그사이에도 김상옥은 몸을 돌려 그를 추격하는 놈들을 쫓다. 눈 덮인 남산을 거쳐 금호동에 있는 작은 절에 이른 그는 승복과 짚신을 빌려 스님으로 위장한 뒤 태연하게 산에서 내려왔다. 그를 쫓던 놈들은 신출귀몰한 그의 행적 앞에 한숨만 내실 뿐이었다. 그랬던 그가 마침내 경성의 경찰력이 총동원된 상태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고 만 것이다.

“김상옥 한 놈 때문에 우리 쪽 16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정말 무서운 놈이야. 이런 놈이 한 놈만 더 있었어도 우리 일본이 이 조선에서 버티기 어려웠을 거야.”

경성 땅을 울린 총소리는 멎었다. 수백 명과 홀로 싸운 김상옥도 숨을 놓았다. 나는 그를 죽게 했다는 자책감으로 내 모든 동작을 스스로 멈추고 말았다. 불령선인의 물품으로 분류돼 종로경찰서에 보관됐던 나는 김상옥의 사건 조서가 꾸며지는 과정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됐다.

“김상옥, 이 사람 비록 우리의 적이긴 하지만 참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이 우리 일본인이었다면 우리 민족의 영웅이 됐을 텐데요.”

“나는 지금도 그자가 살아날까 봐 겁이 나. 그때 다무라 부장님이 총을 맞고 쓰러질 때 난 어둠 속에서도 빛나던 그자의 눈을 봤어. 너무 무서웠어.”

그들이 쓴 조서에 의하면 김상옥은 가난 속에서 자라 어릴 때부터 직공으로 일하며 가족을 돌봤다.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야학을 찾아다니며 공부를 했고, 무식처럼 쉬지 않고 일을 해 번 돈으로 철물점을 차렸다. 3·1 독립운동 이후부터는 독립운동에 투신, 비밀단체를 만들어 독립사상을 퍼뜨리는 신문을 만들기도 했고, 일본 고관과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단을 시도하기도 했다. 일제의 탄압으로 국내 활동이 여의치 않자 중국 상해로 망명한 김상옥은 의열단⁸⁾에 가입,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한편 일본 총독 암살 및 주요 관공서를 파괴하는 계획을 세워 실행에 들어갔다. 국내에 잠입해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에 이어 사 이토 총독 암살작전을 시행하려던 김상옥의 은신처를 알게 되었고 체포작전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이 조서의 주요 내용이었다. 조서에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었다. 그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있었고, 그 어머니 역시 아들로 인해 모진 고문을 당했다는 것이다. 독립운동을 하는 김상옥 때문에 늘 경찰서에 불러

8) 의열단 1919년 11월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된 항일 무력 독립운동 단체

다니며 고초를 겪는 아내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김상옥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자란 어린 남매까지 있었다.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그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언젠가 그가 동료와 나눴던 이야기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김 동지. 결혼은 왜 했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독신이 어울리는 법인데. 안 그렇소,”

“내가 싸우는 이유가 우리 조국만을 위한 건 아니오.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하오. 용감히 싸워 내 아들과 딸이 독립된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것, 그게 내 꿈이니까.”

김상옥 의사 짧게 들여다보기

|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를 앞두고 동지들에게 김상옥 의사가 남긴 말 |

“나의 생사가 이번 거사에 달렸소. 만약 실패하면
내세에서 만나 봅시다. 나는 자결하여 뜻을 지킬지
언정 적의 포로가 되지는 않겠소”



김상옥 의사 | 1890.1. ~ 1923.1 |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에서 태어난 김상옥 의사는 궁핍한 생활로 인해 어릴 때부터 공장 직공으로 일하는 등 가족 부양에 나서야 했다. 1919년 3·1 독립운동을 계기로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길로 들어선 김상옥 의사는 비밀리에 항일신문을 만들다 발각되어 체포되기도 했다. 이후 상하이로 망명, 의열단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1922년 일제의 총독과 고위관리 암살의 임무를 띠고 은밀히 국내에 잠입했다. 같은 해 1월 12일 김상옥 의사는 독립운동 탄압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져 일제 당국의 기습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후 사이토 총독 암살 계획을 준비하던 중 은신처가 발각되면서 수백 명의 일경과 치열한 총격전을 벌이며 3시간 이상을 대치한다. 끝까지 저항하던 김상옥 의사는 마지막 총탄 한 발이 남자 자결을 선택, 3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정부에서는 김상옥 의사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우리가 기억하세요!

내가 그린 '김상옥 의사'

“일제의 서슬 퍼런 감시와 탄압을 뚫고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김상옥 의사는 정말 영웅 중의 영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를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일제의 하수인들 모두 가슴이 내려앉았겠죠. 저는 그래서 김상옥 의사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는 장면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림/글 강원도 화천 화천고등학교 1학년

오윤서

Chapter 6

오래된 구급 가방



오금손 대위를 말하다

오금손 대위를 말하다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

“금손아, 너 혹시 옛날부터 군대에 오고 싶었던 거 아니야? 네가 일등으로 지원했잖아.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왜놈들에게 끌려가서 지금은 생사도 알 수 없어. 그런 내가 조국이 위기에 처했는데 내 살길만 찾는다면 그건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될 것 같았어. 그래서 나선거야.”

기관단총으로 북한군을 쓰러뜨리다

금손이 뒤를 돌아보는데 거짓말처럼 정자가 쓰러졌다. 정자의 가슴에서 피가 철철 솟고 있었다. 금손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 퍼졌다. 짹짹 주변에 있던 기관단총을 잡아챈 금손은 북한군을 향해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순간 병원에 침입했던 북한군 6명이 모두 쓰러졌다.

북한군의 포로가 되다

“거기 남조선 에미나이들!”

눈이 벌게진 북한군이 총을 든 채 앞으로 나왔다.

“가진 거 모두 내려놓고 두 손을 앞으로 내밀라우. 빨리빨리 안하네.”

새끼줄로 금손과 동료들의 두 손을 꼬꽂 묶은 북한군은 그녀들을 데리고 산속으로 갔다.

오래된 구급 가방



나는 휴대용 구급 가방이다. 어깨에 멜 수 있을만큼 작지만 전장에선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 나를 거쳐 간 수많은 의료진 중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이다. 이름이 오금손인 그녀를 내가 처음 만난 것은 개성 도립 병원에서였다. 당시 그녀는 개성 간호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개성 도립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햇살처럼 맑고 푸르렀다. 환자들에게는 친절했고, 동료들에게는 다정했다. 내 몸에 묻은 먼지를 털어낼 때도 그녀의 손길은 언제나 부드러웠다. 나는 그런 그녀가 좋았다. 그러나 우리의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느닷없이 전쟁이 터진 것이다. 포성이 점점 가까워지던 저녁 시간, 간호사들은 모두 회의실에 모여달라는 병원장의 지시가 떨어졌다. 웅성거리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자신을 백골부대장¹⁾이라고 밝힌 장교 한 사람이 간호사들 앞에 나섰다.

“지금 전장에는 간호 인력이 부족합니다. 간호장교로 입대해 조국을 지킬 분은 안 계십니까?”

1) 백골부대장 6·25 전쟁 당시 수도사단 제18연대(백골연대)를 이끌던 연대장 임충식 중령

예상치 않았던 그의 말에 모두 입을 다물었다. 백골부대장의 얼굴에는 낭패감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냥은 물러설 수 없다는 듯 그가 비장한 얼굴로 간호사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우리의 국군이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피줄 수는 없으시겠습니까?”

여전히 회의실에는 정적만이 가득했다. 그를 본 병원장이 체념하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할 수 없다는 듯 백골부대장이 회의실을 나오려는 순간 손가락으로 내 몸의 끈을 만지작거리고 있던 금손이 번쩍 손을 들면서 외쳤다.

“제가 할게요. 간호장교, 제가 입대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금손을 향했다. 그중에는 오금손의 단짝 김정자도 있었다. 금손과 눈이 마주친 정자는 뭔가를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손을 들었다. 마치 그것을 신호로 삼기라도 한 듯이 여기저기서 간호사들의 손이 올라갔다. 그제야 백골부대장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묻어났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조국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자원입대한 간호사는 금손을 포함해 모두 24명이었다. 물론 단짝 정자도 함께였다. 나 역시 금손을 따라갔다. 금손이 동료들과 함께 훈련을 받은 것은 2주일도 채 되지 않았다. 푸른 제복에 낫쇠로 만든 네모반듯한 장교 계급장을 다는 것으로 금손은 백골부대²⁾의 간호장교가 되었다. 군번도 주어지지 않

2) **백골부대** 백골부대라는 별명을 가진 제3보병사단은 대한민국 육군에서 역사가 오래된 보병 사단 중 하나이다. 백골의 뜻은 서북청년단원들이 사단 예하 18연대에 자진 입대하면서 죽어 백골이 되어서도 고향땅을 되찾겠다는 뜻으로 철모에 백골을 그려 넣은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았다. 그만큼 상황이 급했다. 금손과 동료들은 군번 대신 바늘에 실을 꿰 다음 먹물을 문혀 왼쪽 팔뚝에 표식을 남겼다. 혹시라도 전사하게 되면 그것으로 신분을 밝히자는 뜻이었다.

“금손아, 너 혹시 옛날부터 군대에 오고 싶었던 거 아니야? 네가 일등으로 지원했잖아.”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왜놈들에게 끌려가서 지금은 생사도 알 수 없어. 그런 내가 조국이 위기에 처했는데 내 살길만 찾는다면 그건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될 것 같았어. 그래서 나선거야.”

“몰랐어. 네가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줄은. 너희 부모님 이야기 조금 더 들려줄 수 있니?”





“우리 아버지 독립운동을 하셨어. 일본놈들을 쳐부순다고 독립자금을 모아 만주에서 폭탄을 사 오시다가 체포되셨대. 난 아버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도 몰라. 어머니는 나를 임신한 채 일제 경찰의 눈을 피해 상하이 임시 정부로 가던 중 아버지의 중국인 친구 집에서 나를 낳으셨어. 하지만 해산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 뒤를 쫓던 경찰에 잡히셨지. 그 후로 어머니 소식도 끊겼고.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 얼굴도 모른 채 나를 키운 중국인 부부가 친부모님인 줄 알고 자랐어. 그러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됐고 열세 살에 집을 나와 한국광복군³⁾에 들어갔어. 어린 나이였지만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다는 생각에 열심히 말을 타고 총 쏘는 것을 배웠지. 그러다 광복이 됐고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온 거야. 다행히 고마운 분⁴⁾을 만나 간호사 교육도 받을 수 있었고.”

3) **한국광복군** 1940년 중국 충칭에서 창설되었던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군대.

4) **고마운 분** 양근섭을 말함. 청진동에서 순천병원을 개업하고 있던 의사로, 일가친척 없이 한국에 귀국한 오금손을 양녀로 삼아 후원하며 개성간호학교 입학의 길을 열어줬다.

“그랬구나. 어쩐지 너 처음부터 뭔가 있어 보였어.”
 “있어 보인다니 고맙네. 그나저나 정자 넌 겁도 많은데 간호장교에 왜 지원했니?”
 “그러게. 내가 왜 그랬을까. 의리라고나 할까. 단짠 동무가 간다는데 이 언니가 안 갈 수 있나?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 가는 거지.”
 금손은 그런 정자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정자야. 우리 죽지도 다치지도 말자. 알았지.”
 “걱정 붙들어 매셔. 이래 봐도 나 김정자⁵⁾사전에 다쳐본 역사가 없으니까.”

친구 정자와 함께 18연대 수색중대 의무장교로 배치된 금손은 다친 전우들을 응급조치한 후 들것에 실어 후송하는 임무를 맡았다. 상황은 극히 어려웠다. 의약품이라고 해봐야 항생제와 붕대가 고작이었다. 마취도 없이 상처 부위를 도려내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녀의 곁에서 잠시도 떠나지 못한 내 몸에는 언제나 고름 냄새와 피 냄새가 묻어 있었다. 깔끔했던 내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다. 금손을 닮을 수도 없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다쳤고, 시간은 늘 부족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병사들도 많았다.

“부탁이……있습니다.”
 “위험해요. 말하지 마세요.”
 “제 주머니에 편지가……대신 줌…… 보내주세요.”
 “알겠으니까 아무 말 말라고요.”
 “어머니가……날…… 기다릴…….”

금손은 살며시 손을 내려 병사의 눈을 감겨주었다. 더는 숨을 쉬지 않는 그의 주머니에서 금손이 편지를 꺼냈다. 꼬깃꼬깃한 봉투에는 그가 정성 들여 썼을 고향 집의 주소가 적혀있었다. 전북 정읍시 감곡면 방교리 동곡마을, 그 주소를 천천히 따라 읽는 금손의 눈시울이 젖어 있었다.

5) 김정자 오금손의 개성간호학교 동기생.

전쟁은 계속됐다.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1950년 8월 초 금손은 포항 형산강지구 전투⁶⁾가 벌어지는 현장의 야전병원⁷⁾에서 부상자들을 간호하고 있었다.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면서 부상자들도 속출했다.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랄 상황 속에서 금손과 정자는 분주하게 환자들을 오가며 응급조치를 하고 있었다. 그때 느닷없이 귀를 찢는 듯한 따발총 소리가 병원 안에 울려 퍼졌다. 적의 기습이었다. 금손이 뒤를 돌아보는데 거짓말처럼 정자가 쓰러졌다. 정자의 가슴에서 피가 철철 솟고 있었다. 금손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 퍼졌다. 쟁사계 주변에 있던 기관단총⁸⁾을 잡아챈 금손은 북한군을 향해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순간 병원에 침입했던 북한군 6명이 모두 쓰러졌다. 금손은 적의 죽음을 확인하자마자 정자에게 달려갔다.

“정자야! 김정자!”

아무 대답이 없었다. 북한군의 쏜 총이 정자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금손은 온통 피투성이가 된 정자를 안은 채 통곡 같은 울음을 쏟아냈다. 단짝 동무인 금손을 따라 자원입대를 선택한 정자였다. 금손의 곁에 있던 나도 울었다. 유독 겁이 많았던 정자는 환자의 상처 부위를 도려낼 때마다 제대로 눈을 뜨지 못했다. 그래도 날렵한 솜씨로 흰 붕대를 감을 때면 스스로를 백의의 천사라고 추켜 세우며 깔깔거렸다. 나는 정자의 그 웃음이 좋았다. 그날 밤 금손은 내내 훌쩍거리었고, 나는 정자를 추억하며 소리를 삼킨 채 울었다. 정자가 너무 생각났다.

“오금손 대위!”

- 6) **포항 형산강지구 전투** 국군이 북한군으로부터 포항을 지켜내고 형산강을 도하하여 적을 물리침으로써 반격을 개시할 기회를 만든 전투.
- 7) **야전병원** 부상병을 일시적으로 수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전투 지역과 가까운 후방에 설치하는 병원.
- 8) **기관단총** 기관총이나 소총에 비하여 총신이 짧고 가벼우며, 어깨나 팔에 받치고 사격한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목표물에 사용하기 적당하며 연속 사격이 가능하다.



“예?”

“대답이 그게 뭐가? 간호장교라고 너무 빠진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전 대위가 아니라 소위입니다.”

“어제까지는 그랬겠지. 하지만 자네는 이제 대위다. 지난번 적의 기습 때 6명의 북한군을 사살하는 전공을 올린 것을 상부에서 높이 샀다. 2계급 특진⁹⁾이야. 앞으로 더 많은 공을 세우도록.”

“감사합니다.”

2계급 특진이라는 소식에도 금손의 표정에선 기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여전히 정자의 죽음이 금손의 마음을 울적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전장에서 그녀는 한치의 빈틈도 보여주지 않는 단호하면서도 유능한 간호장교의 모습을 지켜가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 할 때 나는 세상 사람의 생명을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곤 했다.

전선은 반전의 연속이었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그동안의 수모를 털어내고 힘차게 북진을 해나가던 국군은 느닷없는 중국군의 개입으로 다시 밀리기 시작했다. 금손이 속한 부대 역시 후퇴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강원도 금화와 철원 중간지점에 있는 케이(K) 고지를 놓고 적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전장은 적과 아군이 뒤엉켜 싸우는 그야말로 끔찍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그 틈바구니에서도 그녀는 어딜 가나 나를 매고 뛰어다녔다. 폭탄이 터지고 비명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정신을 잃지 않는 금손 덕분에 나도 구급 가방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행운이 늘 금손의 편이 되어준 것은 아니었다. 적의 공세가 격렬해지면서 부대는 어느새 삼삼오오 흩어졌고, 그 와중에 그녀 역시 몇몇 동료들과 함께 고립되고 말았다. 금손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다. 막막해진 금손이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때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9) 2계급 특진 오금손은 공적을 인정받아 소위에서 대위로 특별히 2계급 상향되어 진급함.

“거기 남조선 에미나이들!”

눈이 벌개진 북한군이 총을 든 채 앞으로 나왔다.

“가진 거 모두 내려놓고 두 손을 앞으로 내밀라우. 빨리빨리 안 하네.”

새끼줄로 금손과 동료들의 두 손을 꽂꽂 묶은 북한군은 그녀들을 데리고 산속으로 갔다. 나는 멀어지는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전장에서 본 수많은 이들처럼 그녀 역시 죽게 될 거라는 생각에 미칠 것만 같았다. 그렇게 며칠이 갔다. 바닥에 버려진 채 뒹굴던 나를 누군가가 잡아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제 정신이 좀 됩니까?”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내게 묻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가 어디죠?”

누군가의 힘없는 대답이 들렸다. 그렇다면 그 남자의 질문은 내게 한 것이 아니었다. 하긴, 구급 가방한테 질문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 어쨌든 나도 그 덕분에 정신이 들었다. 얼마나 잠들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여긴 야전병원입니다. 당신은 쓰러진 채 발견됐어요. 우측다리를 관통당했고, 하복부에도 파편을 맞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정도로 회복이 된 건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그나저나 이제 물어볼 수 있게 됐군요. 당신의 소속과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수도사단 백골부대 간호장교 오금손 대위입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오금손 대위, 그녀가 살아있었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다.

“어쩌다 그곳에서 쓰러져 발견된 겁니까?”

“적의 포로가 됐었어요.”

금손의 이야기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북한군에게 끌려간 금손은 눈앞에서 사람을 죽이는 처참한 모습까지 지켜봐야 했다. 금손 역시 말을 듣지 않는다고 두들겨 맞았고, 심한 고문까지 받아야 했다. 그 외중에도 금손은 틈을 타 탈출까지 시도했다. 광복군 시절 배운 대로 손목을 묶은 줄을 이로 끊고 도망쳤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잡힌 금손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북한군은 그녀의 손톱과 발톱은 물론 이까지 다 뽑아버렸다. 비록 대위의 계급장을 달았지만, 나이는 겨우 스물두 살의 처녀에 불과했던 그녀에게는 엄청난 수모와 고통이었다. 그녀는 다행히 포기하지 않았다. 아군의 집중 포격에 북한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금손은 또다시 달아났다. 그녀를 향해 북한군의 총알이 비 오듯 쏟아졌다. 금손은 달리고 또 달렸다. 그러다 우측다리에 뭔가가 파고드는 통증을 느끼는 순간 그녀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운 좋게도 적진이 아닌 국군의 야전병원에 누워있었다. 나는 다시 돌아온 그녀를 미치게 보고 싶었다.

“아, 백골부대 간호장교라고 했죠. 어쩌면 이 구급 가방이 그쪽 물품일 수도 있겠네요. 곁에 백골이라고 쓰여있던데.”

“이걸 어떻게?”

“후퇴하던 병사가 우연히 주운 것 같습니다. 다시 기운 내서 국군을 돌봐야죠. 오금손 대위.”

“고맙습니다.”

잠시도 잊고 싶지 않았던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다시 나를 잡았다. 그녀가 날 받아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싶던 그녀를 마침내 숨소리가 닿을만한 거리에

서 마주했다. 머리는 엉망이고 이는 다 뽑혀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지만 분명 그녀는 내가 아는 금손이 맞았다. 그녀도 다시 만난 나를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 어깨에 둘렀다. 그리곤 버릇처럼 손가락으로 나를 만지작거렸다. 꼭 잘 지냈냐고 내게 묻는 것 같았다.

몸을 추스른 금손은 다시 부대로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다 전역했다. 그녀에게 따라붙은 부상의 후유증은 평생 그녀를 괴롭혔다. 그러나 그녀는 2004년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았다. 오금손 대위, 이제 그녀는 대한민국이 잊지 말아야 할 전쟁영웅의 한 사람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내게 여전히 그녀는 맑고 푸르던 스무 살 무렵의 금손으로 남아있다. 지금도 가끔 그녀가 생각난다.

오금손 대위 짧게 들여다보기

| 오금손 대위가 간호장교로 자진 입대하던 순간을 기억하며 남긴 말 |

“위기에 빠진 조국을 위해 간호장교로 입대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나는 손을 번쩍 들고 말았다. 바로 그 길이 조국 광복을 위해 싸우다 일본놈들에게 끌려가신 부모님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금손 대위 | 1931.2 ~ 2004.11 |

오금손 대위는 1931년 독립운동가 오수암 선생의 외동딸로 북경에서 출생하였다. 채 돌이 되기도 전에 부모를 잃은 소녀 오금손은 중국인 가정에서 자라다가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 항일투쟁의 길로 나서게 된다. 해방 이후, 조국에서 개성 간호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개성 도립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오금손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조국을 지키고자 자진 입대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8월 초, 포항 형산강지구 전투에서 부상자들을 돌보던 임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금손은 병원을 기습한 북한군에 당당히 맞서 이를 물리침으로써 2계급 특진, 대위로 진급하게 된다. 이는 광복군 시절 사격과 전투 훈련을 철저히 받은 결과였다. 아군의 북진 시기에도 늘 전장을 지키며 전투 장교의 어려운 역할까지도 함께 감당해냈던 그녀는 금화와 철원 중간지점에 있는 K고지 전투 중, 전우들과 함께 북한군의 포로가 된다. 끊임없는 고문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던 그녀는 적군이 교전에 빠진 순간 탈출을 감행하여 부대에 복귀,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고자 하였다. 탈출 중 입은 부상의 재발로 군을 떠나게 된 이후, 향년 74세의 나이로 타계할 때까지 오금손은 아버지 오수암 선생을 이어 늘 조국만을 생각하며 일생을 나라에 바친 영웅이었다.

우리가 기억하세요!

내가 그린 '오금손 대위'

“오금손 대위는 우리 국군을 돌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스스로 전쟁터에 나가는 간호장교를 택하셨잖아요. 또 위기의 상황에서는 직접 총을 들어 싸우기도 하셨고요. 하지만 상처를 입은 병사들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한 간호장교의 모습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상상하며 그려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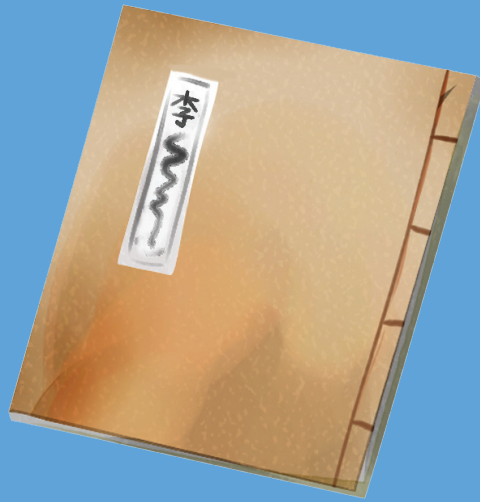


그림/글 서울 삼각산중학교 3학년

최 리 아

Chapter 7

가문의 족보



이장원 중위를 말하다

이장원 중위를 말하다

선친과 조상이 목숨까지 바쳐가며 다시 찾은 나라를 빼앗길 수 없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4월 해병사관후보생 5기로 입대한 것도 그에게는 우연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의 선친과 조상이 목숨까지 바쳐가며 다시 찾은 나라를 고스란히 빼앗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같은 해 9월 소위로 임명된 이장원은 곧바로 황토도 파견소대장으로 부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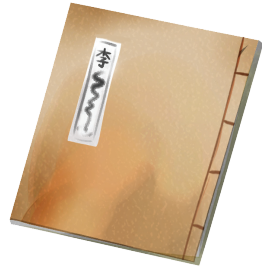
제대로 싸우다 죽자

“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대론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겁내지 마라. 오늘 우린 여기서 죽는다. 이왕 죽을 거라면 제대로 싸우다 죽자. 그것이 우리의 몫이다. 모두 알겠나.”

목숨을 바쳐 황토도를 지켜내다

소대장의 비장한 최후를 목격한 소대원들은 함께 죽을 각오로 마지막까지 분투했다. 격렬한 저항에 부딪힌 적들은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갔다. 그의 소대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을 격멸, 진지를 지켜냈다. 그들이 목숨을 바쳐 황토도를 지킴으로써 우리 국군은 적의 해상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



나는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을 밝혀 놓은 책, 바로 족보다. 요즘 사람들은 가문이니 족보니 하는 말들을 구닥다리 옛것으로 생각한다. 심지어는 시험족보라 하여 기출문제를 잘 정리해놓은 것에 감히 우리의 이름을 붙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 족보는 한 가문의 뼈대인 동시에 그 가문이 대대손손 이어가야 할 뜻을 밝힌 이정표나 다름없다. 이쯤 되면 대체 어느 집 족보길래 그렇게 큰소리를 치나며 시비를 걸어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밝혀야겠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구한말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가 수당 이남규 선생 가문의 족보다. 이남규 선생의 이름을 그대들은 들어보았는가? 당연히 모른다 할 것이다. 그대들의 드높은 교양 향상을 위하여 잠시 이남규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물론 가문의 원족보에 따르면 이남규 선생은 고려에 대한 절의를 지켜 충성과 지조의 상징으로 자리한 고려 후기 문신인 목은 이색의 19세손이 된다. 그

러나 오늘날만큼은 약 백 년의 시간 동안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한 근세의 빛나는 4대손을 조명하고자 함이니 일단 항일 독립운동가였던 수당 이남규 선생을 1대로 놓고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대들은 혹시 단군 시대부터 삼한까지의 역사를 자주적인 시각에서 써내려간 ‘조선상고사’라는 책을 아는가? 그 책을 지은 이가 바로 신채호 선생이시다. 그런데 이분의 스승 되는 분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남규 선생이라는 사실을 먼저 귀뜸해주고자 한다. 그만큼 뛰어난 학문을 지녔던 이남규 선생은 고종 19년에 문과급제 후 궁내부특진관¹⁾, 즉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장쯤 되는 대한제국의 고위 관리이자 고종의 최측근이었다. 그런데 그 시절 일이 어떠한가? 함부로 내정을 간섭하는 것은 물론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나아가 을사늑약²⁾으로 우리나라를 통째로 삼키려는 일본의 침략야욕이 드세던 시절이었다. 이남규 선생은 그때 목소리를 높여 임금에게 고했다.

“폐하, 일제와 결전을 치르셔야 합니다.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훼손당한 주권을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궁내부특진관의 의로움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요.”
 “불충한 신의 뜻을 아신다면 가만히 계셔서는 아니 되웁니다.”
 “답답하지만 어쩔 수가 없소. 지금 과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소.”

안타깝도다. 황제에게는 그의 말을 들어줄 힘이 없었다.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간 이남규 선생은 1907년 9월 26일 일제의 감시를 받던 중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다들 눈치챌겠지만, 일제의 소행이었다. 일제의 간교한 술책을 파악하여 직언으로 상소하는 그를 죽여버린 것이다. 요즘 말로 치면 돌직구를 던지는 그를 일제는 늘 두려워했다. 여기서 잠깐 그가 을사늑약 직후 고종임금께 올렸던 상소 하나를 보여주고자 한다.

- 1) **궁내부특진관** 조선 말기 왕실에 관한 여러 업무를 총괄하던 관청에서, 왕실의 전례·의식에 관한 일을 포함하여 왕실사무에 대한 왕의 자문에 응하였던 관리.
 2) **을사늑약** 대한 제국기,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강제로 체결한 조약.



"불의로 존재함은 이로움에 망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불의로 사는 것은 이로움에 죽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물며 의가 틀림없이 망했는데도 죽지 않고, 불의가 틀림없이 존재하는데도 죽지 않겠습니까. 앞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매국 무리들의 죄를 다스리시고, 원수의 나라(일제)가 맹약을 어긴 죄를 동맹 각국에 포고하고, 군신 상하가 일치단결하여 (일제와) 일대 결전을 벌이게 하여 주십시오."

| 을사늑약 직후 올린 수당 이남규 선생의 '청토적소' 중에서 |

어느 글귀 하나 틀린 것이 없고, 어느 글귀 하나 대장부답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분의 목숨을 일제의 창칼에 빼앗겼으니 참으로 분한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2대인 유재 이충구 선생은 아버지 이남규 선생의 목숨이 위태롭던 순간 과연 어디 있었을까? 안타깝고도 안타까운 일이다. 그 역시 아버지와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다. 수당 선생의 장남인 유재 이충구 선생은 아버지를 그대로 빼다

박은 대쪽같은 선비였다. 학문은 높았으며 욕심은 없었다. 오로지 그가 따르는 것은 불의에 굴하지 않는 정의요, 지키고자 하는 것은 그를 낳아준 나라였다. 그는 1907년 9월 26일 협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는 부친을 향해 칼을 든 일본군을 막아섰다.

“이 불한당³⁾같은 놈들, 네놈들이 어찌하여 감히 내 아버님 몸에 그 더러운 칼을 대려 하느냐? 어서 치우지 못할까.”

“그 아비에 그 아들이군. 잘 됐다. 너도 함께 저승길로 보내주마.”

“너희들이 그러고도 천벌을 면할 성싶느냐?”

“역시 선비란 놈들은 말이 많아서 안 돼. 그렇게 소원이라니 네놈부터 죽여주마.”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들의 칼은 이충구 선생 부자를 향해 날을 세웠다. 아들과 아버지가 모두 한날한시에 잔혹한 칼날에 쓰러진 것이다. 그들이라고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더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을 알기에 1대 이남규 선생과 2대 이충구 선생은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나라를 살리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모두 떠나 보낸 3대 평주 이승복 선생은 어떤 길을 걸었을까?

수당 이남규 선생의 맏손자가 되는 이승복 선생 역시 독립운동의 길을 걸었다. 그는 러시아 연해주와 북만주에서 이동녕, 이회영, 이시영, 이상설 등 당대의 쟁쟁한 독립투사들과 만나며 독립의 의지를 불태웠다. 1920년에는 훗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제2대 대통령을 지내기도 한 박은식 선생과 함께 우리 민족의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청구신문’을 발간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돼 6개월간 구금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독립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그는 일제에 맞서기 위해 조직한 무장단체인 대한국민군⁴⁾을 돕기 위해 은밀하게 군자금을 모았다. 그의 활약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김상옥 의사⁵⁾의 종로경찰

3) 불한당 때를 지어 다니며 강도짓을 하는 무리 혹은 남을 괴롭히는 것을 일삼는 사람을 일컫는다.

4) 대한국민군 1920년 봄에 북간도의 대한국민회에서 편성한 독립군.

5) 김상옥 의사 의열단원으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일제 군경과 교전하던 중 순국한 독립투사.

서 폭파 의거에 연루되기도 하고, 신간회⁶⁾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기도 했으며, 우리 동포들을 돕는 구호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우리 독립운동사의 굵직한 사건과 행적을 같이한 그는 그때마다 경찰서에 불려가 심한 고초를 겪거나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이승복, 이번에도 네놈이나?”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러니 나를 죽이든 살리든 너희 맘대로 해라.”

“너도 네 아비나 네 할아버지처럼 죽고 싶다는 건가? 제발 좀 나서지 말란 말이다.”

“나라를 위해 의롭게 죽는 게 두려울 게 무엇인가? 너희 같은 놈들은 버려지 같이 살아도 사는 쪽을 택하겠지만, 우리 민족은 그렇지 않다. 부끄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이다.”

“이거 완전히 미친놈이군. 뭐하나. 이놈을 어서 가두지 않고.”

어떻게 보면 3대 이승복 선생은 독립운동사의 양파 같은 존재라고도 할 수 있다. 조금만 파고들면 그와 관련한 새로운 독립운동의 기록이 계속 등장하니 말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오로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바쳤던 셈이다. 혹시 그대들은 이런 말을 들어보았는가? ‘큰 부자도 3대를 못 간다’는 그런 말 말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실제로 그렇다. 아무리 좋은 뜻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 마련이고, 아무리 날카로운 칼도 세월 속에 무뎠지는 법이다. 그렇다면 수당 이남규 선생의 가문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족보인 내게 물어본다면 단언컨대 ‘아니올시다’라고 말하겠다. 4대가 되는, 그러니까 수당 선생의 증손자가 되는 이장원 중위는 엄연한 6·25 전쟁 영웅 중 한 사람이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에 이어 그 역시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다 세상을 떠났다. 대를 이은 나라사랑의 이야기는 이제 4대 이장원 중위의 이야기로 접어든다.

6) 신간회 1927년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연합하여 결성한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장원 중위의 아버지는 3대인 독립운동가 이승복 선생이다. 독립운동가의 뜻은 환하지만 집은 어두운 그늘이라는 말이 있다. 가장 이 독립운동에 나서면 그만큼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이승복 선생의 가족 역시 그랬다. 독립운동가 아버지가 수시로 잡혀가고, 수시로 도망다녀야 하는 세월 동안 아이들은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철들어야 했다. 이승복 선생의 큰아들 4대 이장원도 그랬다. 특히면 조사한다고 찾아와 집안을 헤집어 놓는 일제 경찰을 보는 것이 이장원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이장원은 무엇이 나라를 위하는 것인지는 분명히 알고 자랐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4월 해병사관후보생 5기로 입대한 것도 그에게는 우연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의 선친과 조상이 목숨까지 바쳐가며 다시 찾은 나라를 고스란히 빼앗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같은 해 9월 소위로 임명된 이장원은 곧바



로 황토도⁷⁾파견소대장으로 부임했다. 그대들로서 이름 한 번 들어본 적 없을 만큼 생소할 황토도는 과연 어떤 곳인가? 원산 동쪽에 있는 갈마반도 앞바다의 작은 섬인 황토도는 이름 그대로 누런 흙만 가득한 곳이다. 단 한 그루의 나무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황량한 섬에 지나지 않았다. 섬에서는 먹을 물조차 구할 수가 없어 몇 주에 한번 보급품을 싣고 들르는 해군 함정이 없다면 모두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열악한 섬이었다. 그러나 당시 황토도는 적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닿아 있었다. 육지에서 본다면 박격포를 쏘서 맞출 만한 거리 정도다. 적과 그렇게나 가깝다는 사실은 이 섬을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섬으로 만들었다. 물론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뺏아야 할 최우선의 땅이었다.

실제로 적의 공격은 계속됐다. 최초 공격이 있었던 1951년 5월 23일, 20여 명의 병력으로 기습작전을 펼쳤던 북한군은 모두 사살됐다. 다음날인 5월 24일에는 그 수를 다섯 배 늘린 100여 명이 공격을 감행했지만 역시 우리 해병에 의해 격퇴됐다. 그리고 마침내 이장원 소위와 북한군과의 운명의 전투가 벌어진 1951년 11월 29일이 찾아왔다. 그날 밤 제25여단 소속 150여 명의 북한군은 5척의 목선을 이용해 황토도에 은밀히 접근해 왔다. 2차 기습 때보다도 병력을 더 늘려 공격해온 것이다. 당시 섬을 지키던 우리 군은 3분대로 나눠 해안경계를 서고 있었지만, 적의 침입을 알지 못했다. 그날따라 풍량이 심하고 눈앞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웠던 탓이다. 칠후 같은 어둠 속에서 쏘아 올린 예광탄⁸⁾을 신호로 북한군은 아군의 진지를 향해 집중 사격을 가하며 상륙하기 시작했다. 뒤늦게야 상황을 알게 된 이장원 소위는 적과 치열한 교전을 펼치는 소대원들을 독려하는 한편 그 자신도 적과의 일전에 나섰다. 그러나 중과부적이었다. 어둠 속에서 적들은 계속 밀려왔다. 아군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7) **황토도** 함경남도 영흥만 인근에 있는 섬. 6·25 전쟁 당시 황토도는 국군의 해상봉쇄선상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북한은 이 거점을 장악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습공격을 시도했다.

8) **예광탄** 목표 지점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내며 날아가게 만든 탄환. 주로 신호하거나 목표물을 지시하는 데 쓴다.

“무전병, 상황을 빨리 본대에 알려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소대장님, 교신이 되지 않습니다. 적의 포탄에 무전기가 망가진 것 같습니다.”

“알겠다. 모두 위치를 사수하라.”

“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대론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겁내지 마라. 오늘 우린 여기서 죽는다. 이왕 죽을 거라면 제대로 싸우다 죽자. 그것이 우리의 몫이다. 모두 알겠나.”

본대와 교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무전기가 망가졌다는 것을 안 순간 이장원 소위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다. 비굴한 삶보다 나라를 위한 의로운 죽음을 택했던 선대의 어른들처럼 그 역시 적과 싸우다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도 그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웠다. 그리고 병사들의 두려움을 달랬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는다.”

움츠렸던 소대원들이 다시 총을 쏘기 시작했다. 흔들렸던 그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그때 진지 내로 적의 포탄이 날아들었다. 소대원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이장원 소위는 바닥에 쓰러진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3명의 소대원과 함께 전사한 것이다.

“소대장님! 소대장님!”

“이놈들, 다 죽여버리겠어.”



소대장의 비장한 최후를 목격한 소대원들은 함께 죽을 각오로 마지막까지 분투했다. 격렬한 저항에 부딪힌 적들은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갔다. 그의 소대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을 격멸, 진지를 지켜냈다. 그들이 목숨을 바쳐 황토도를 지킴으로써 우리 국군은 적의 해상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 이장원 소위가 소대원들과 함께 목숨을 바쳐 구한 승리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는 힘이 됐다.

이제 이 글을 읽은 그대들도 알 것이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이장원 중위의 가문이 왜 명문가인가를. 세상은 참 많이도 변해간다. 그러나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있다.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장원 중위의 4대에 걸친 나라 사랑을 내가 굳이 그대들에게 알리는 것도 그 마음을 크게 여겨서다. 이제는 바로 그대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 나라가 무엇인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빛나는 젊음과 생명을 스스로 버렸는지를 그대들은 알아야 한다.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그때는 누군가 나를 구닥다리 옛것으로 여겨 거들떠보지 않는다 해도 잠자코 있을 것이다.

이장원 중위 짧게 들여다보기

| 이장원 중위가 전장으로 나가며 동생에게 남긴 말 |

“아우야, 나는 전장으로 떠나니
네가 가족을 보살피시오.”



이장원 중위 | 1928.2. ~ 1951.11 |

4대에 걸쳐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 명문가의 출신인 이장원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4월 해병사관후보생 5기로 입대하여 같은 해 9월 소위로 임관했다. 해병 독립 42중대 소속 황토도 파견소대장으로 부임하여 최전선에서 적과 대치했다. 1951년 11월 29일, 이장원 소대장은 북한군 제25여단 소속의 대규모 병력을 맞아 소총 사격을 집중시켜 적의 해안 상륙을 저지했다. 하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이 황토도에 상륙하자 치열한 교전을 펼치게 되었다. 교전 중 무전기가 적탄에 파괴되어 본대와 교신이 끊기는 바람에 아군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는 대원들의 사기를 독려하며 싸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지 내에 떨어진 적탄에 의해 부하 3명과 함께 전사했다. 소대장의 용맹한 최후를 목격한 대원들은 모든 화력을 집중시킨 끝에 적군을 물리치고 진지를 사수했다. 정부는 목숨을 던져 황토도를 지킴으로써 적의 해상보급로를 차단하는데 결정적인 전공을 세운 고(故) 이장원 소위의 공을 기려 중위로 특진시키고 그에게 충무무공훈장¹⁾과 을지무공훈장²⁾을 추서했다.

1) **충무무공훈장** 무공 훈장 가운데 셋째 등급의 훈장.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2) **을지무공훈장** 무공 훈장 가운데 둘째 등급의 훈장

우리가 기억하세요!

내가 그린 '이장원 중위'

“많은 병력과 무기를 가지고 기습한 북한군을 보고도 이장원 중위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를 배경으로 이장원 중위가 많은 병력을 앞세우고 나타난 북한군을 담담하게 바라보며 결전의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봤어요.”



그림/글 서울 삼각산중학교 3학년

김은비

Chapter 8

장군의 만년필



밴플리트 부자를 말하다

밴플리트 부자를 말하다

나는 승리를 거두기 위해 왔다

“나는 우리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온 게 아니요. 오로지 승리를 거두기 위해 온 것이요.”

그것은 중국군의 공세에 당황하며 철수를 거론하는 지휘관과 참모를 다잡기 위한 말이었다. 그리고 그의 선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이 되었다.

아버지와 함께 싸우고 싶어 자원하다

폭격기를 조종하는 공군 중위였던 아들 지미의 전화가 걸려온 것도 그즈음이다.

“아버지, 저도 곧 한국으로 갑니다.”

“정말이냐?”

“아버지가 사령관으로 싸우고 있는 한국에서 함께 싸우고 싶어 자원했습니다.”

아들의 수색작업을 중단시키다.

“지금 당장 지미 밴플리트 중위에 대한 수색작업을 중단시키게.”

“하지만 아드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지에서의 수색작전은 무모한 것이 아닌가. 내 아들을 찾으려다가 또 다른 우리의 아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건 내 명령이야. 당장 수색작업을 중단시키게.”

“알겠습니다.”



나는 만년필이다. 지금은 단 한 글자도 적지 못하는 고물이 되고 말았지만, 한때 나는 장군의 만년필이었다. 6·25 전쟁 영웅 중 한 사람이었던 밴플리트 미 제8군 사령관이 바로 그 장군이다. 그는 언제나 나를 소중히 여겼고, 나를 통해 수많은 편지를 썼다. 사랑과 우정, 격려와 감사, 그리고 슬픔과 통곡까지도 그는 나를 통해 편지로 풀어냈다. 사실 밴플리트 사령관과 내가 처음 만난 곳은 역사상 최고의 상륙작전이 펼쳐진 프랑스 노르망디였다. 그의 동료가 바다에 빠뜨릴 뻔했던 나를 그가 구하면서 나는 그의 만년필이 됐다. 행운을 빌면서 그의 동료가 나를 선물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나의 영웅이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¹⁾ 당시 연대장으로 참전해 뛰어난 지휘능력을 발휘했던 그는 시간만 나면 편지를 보냈다. 물론 그 편지를 채운 글씨는 모두 나를 통해 쓰였다. 그 덕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사랑하는지 나는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아내를 사랑했고, 두 딸과 아들을 누구보다 아꼈다. 가족에게 그는 누구보다 다정다감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지만, 전장에서의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통솔력과 용맹을 발휘하는 장군이었다.

1) **노르망디 상륙작전** 제 2차 세계 대전 중인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아이젠하워 장군의 지휘 아래 노르망디에 상륙한 작전

“밴플리트 중장, 당신을 제8군 사령관에 임명합니다.”

“제8군사령관은 6·25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국군을 비롯하여 모든 유엔 지상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겐 너무나 과분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당신이 필요하오. 장군도 알다시피 지금 전선은 중국군의 개입으로 수세에 몰려있소. 당신이 그 판세를 반드시 역전시켜야 합니다.”

명령에 따라 미 제8군사령부²⁾가 있는 대한민국의 대구로 가기 위해 짐을 꾸리는 밴플리트를 바라보는 그의 아내 헬렌의 눈가가 어느새 젖어 있었다. 말없이 다가간 그가 아내를 안았다. 그리곤 속삭이듯 말했다.

“별일 없을 거요. 반드시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당신 곁으로 돌아오겠소.”

밴플리트가 짐을 싣고 떠날 때에도 나는 함께였다. 그의 상의에 나는 마치 훈장처럼 꽃혀있었다.

“나는 우리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온 게 아니오. 오로지 승리를 거두기 위해 온 것이오.”

그것은 중국군의 공세에 당황하며 철수를 거론하는 지휘관과 참모를 다잡기 위한 말이었다. 그리고 그의 선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이 되었다. 당시 중국군은 새로운 사령관으로 부임한 밴플리트의 기세를 제압하겠다는 듯 막바지 대공세를 펼쳐 왔다. 밴플리트 장군은 중동부 전선을 뚫으려 하는 중국군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던 국군의 화력을 적극 지원했다. 인적 공세로 밀어붙이는 중국군의 전략적 의도를 막강한 화력으로 꺾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장에서의 숭한 경험을 통해 내린 그의 판단은 옳았다. 궁지에 몰렸던 국군은

2) **미 제8군사령부** 미 국동군사령부의 예하부대로 6·25 전쟁 당시 미 지상군을 지휘한 것은 물론 한국에서의 유엔군의 지상 작전을 총지휘했다.



강한 화력을 기반으로 중국군에게 오히려 큰 타격을 입히며 전선에 승리의 기운을 드리웠다. 폭격기를 조종하는 공군 중위였던 아들 지미의 전화가 걸려온 것도 그즈음이다.

“아버지, 저도 곧 한국으로 갑니다.”

“정말이냐?”

“아버지가 사령관으로 싸우고 있는 한국에서 함께 싸우고 싶어 자원했습니다.”

아들 지미는 그리스에서의 근무를 막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참전할 의무가 없었다. 밴플리트 사령관은 아들의 자원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아들을 대견하게 여겼다. 그러나 어머니 헬렌은 달랐다. 남편에 이어 아들마저 생사가 갈라지는 전쟁터에 보내고 싶지 않았다.

“네 엄마가 걱정이 많겠구나.”

미국을 떠나 대구 사령부로 찾아온 아들을 안으며 밴플리트 사령관은 기쁨과 동시에 아내에 대한 미안함을 느꼈다.

“지금 당장 엄마에게 편지를 쓰렴. 자, 여기 종이와 펜이다.”

지미를 위해 사령관이 자리를 비워줬다. 지미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편지를 채워 나갔다. 지미의 손은 따뜻했다. 아버지 밴플리트 사령관의 손을 그대로 닦아 있었다. 편지에는 지미의 따뜻함과 의젓함이 그대로 담겼다.

군인의 아내이자 군인을 아들로 둔 어머니께.

어머니의 눈물이 이 편지에 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의지로 비행훈련을 받았고, 전투기를 조종해 적과 싸울 것입니다. 저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계신 아버지의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해 기보다는 저와 함께 싸우는 전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고, 아직 가정을 이뤄본 적 없는 이도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지미의 편지를 볼 수 있는 내가 행복했다. 이후에도 나는 지미를 볼 수 있었다. 1952년 3월 19일 지미는 케이크를 들고 제8군사령부를 찾아왔다. 아버지 밴플리트 사령관의 60회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사령관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지미야. 둘이 있을 때는 아버지라고 해야지.”

“아, 버릇이 돼서요. 아버지.”

“그래, 이곳에서의 생활은 견딜 만 하니?”

“좋습니다. 아직까진 작전도 순조롭고요.”

“그래도 언제나 조심해라. 전장에는 승리만 있는 게 아니다. 패배와 죽음도 늘 한자리에 있지.”

“네, 명심할게요. 아버지.”

그날 아들 지미 밴플리트 중위가 돌아가는 뒷모습에서 사령관은 난데없는 아련함을 느꼈다.

“저 아일 위해서라도 얼른 이번 전쟁을 승리로 끝내야 한다.”

밴플리트 사령관의 혼잣말에는 어딘지 물기가 젖어 있었다.



1952년 4월 2일 아들 지미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며칠 뒤에 제가 북한 지역으로 출격하게 됩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하거라.”

그러나 지미는 돌아오지 않았다. 1952년 4월 4일 새벽 1시 5분 밴플리트 중위는 압록강 남쪽의 순천지역을 폭격하기 위해 출격했다. 밴플리트 중위는 이미 여러 번의 성공적인 출격 경험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단독 폭격은 처음으로 맡겨진 임무였다. 군산비행장에서 이륙한 지 2시간 후 김포공항 미군 레이다에 잡힌 것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 그의 비행기가 실종된 것이다. 그날 아침 10시 30분 밴플리트 사령관은 미 제5공군 사령관 에베레스트 소장의 방문을 받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사령관님.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아드님인 밴플리트 중위가 실종돼 현재 수색작업을 벌이는 중입니다.”

“적의 대공포화에 격추된 건가? 아니면 단지 실종인가?”

“아직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적지에서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으니 곧 알게 될 겁니다.”

순간 밴플리트 사령관은 눈을 감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다시 눈을 뜬 밴플리트 사령관의 표정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최선을 다해 찾아주세요.”

그날 저녁 사령관은 나를 들고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헬렌에게.

지미가 오늘 전투 중 실종됐소. 나는 지미가 곧 발견되어 안전하게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소. 지미는 오늘 새벽 평양 남쪽에서의 무선 교신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소. 아마도 서울 북서쪽의 진남포와 해주 사이에서 추락한 것 같소.

편지를 쓰던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나는 책상 아래로 툭 떨어지고 말았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가해지는 충격과 싸우며 편지를 쓰고 있었다. 그가 다시 나를 집어 올렸을 때 나는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았다. 분명 그 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잠시 숨을 고른 그가 다시 나를 움직여 편지를 마저 써나갔다.

너무 걱정하진 마시오. 이런 상황에서 조종사들이 구출된 경우가 의외로 많소. 나는 우리 아들이 그 정도 능력과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더군다나 현재 우리 공군이 수색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오. 내가 지난 4월 2일 통화했을 때 지미는 자신이 바라던 임무를 맡았다며 매우 기뻐했소. 부디 당신도 의연하게 버텨주길 진심으로 바라오.



그러나 수색작전은 아무런 성과를 보이지 않았다. 지미의 흔적이 끝내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참모들이 수색작전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모두 장군의 결정을 기다리는 순간 뜻밖의 대답이 들려왔다.

“지금 당장 지미 밴플리트 중위에 대한 수색작업을 중단시키게.”

“하지만 아드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지에서의 수색작전은 무모한 것이 아닌가. 내 아들을 찾으려다가 또 다른 우리의 아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건 내 명령이야. 당장 수색작업을 중단시키게.”

“알겠습니다.”

참모들이 나간 후 밴플리트 사령관은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했지만 최고 사령관으로서 수많은 부하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결코 저버릴 수 없던 그였다. 그러나 나는 그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알 수 있었다. 책상에 엎드린 그의 어깨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령관님, 좀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네. 지금은 전시 상황이야. 내 개인적인 일에 신경 쓰지 말게.”

아들이 북한지역에서 실종된 후에도 밴플리트 사령관은 주어진 업무를 그대로 해나갔다. 그러나 업무를 마치고 난 후면 사령관은 벽에 걸려있는 한국 지도에서 아들이 실종됐다는 작전지역을 찾아 한참을 바라보곤 했다. 어쩌다 참모들에게 그 모습을 들키기도 했다. 누구보다 강한 사령관이었지만 그 역시 누구보다도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다.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였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밴플리트 사령관 역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위로 전문을 보내야겠네.”



“누구한테 말씀이십니까?”

“나처럼 6·25 전쟁에서 자식을 잃은 모든 미국의 부모들에게 보내는 전문이네.”

“사령관님, 아직 지미는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야. 인정할 건 해야지. 이제는 내가 먼저 인정하고 자식 잃은 부모들을 위로할 때가 됐네. 곧 전문을 줄 테니 잠시 후에 오게.”

부관이 나간 후 밴플리트는 내 몸에 잉크를 가득 채운 후, 짧지만 가슴 아린 글을 쓰기 시작했다.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저와 같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나라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벗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놓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모두 위대한 미국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위로 전문은 6·25 전쟁에 참전해 자식을 잃은 미국 전역의 부모들에게 전해졌다. 밴플리트 사령관은 사령관이 아닌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한 것이다. 시간이 지난 후 밴플리트의 아들인 지미 밴플리트 중위가 중국군의 대공포에 맞아 북한 상공에서 격추됐고, 이로 인해 전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때까지 밴플리트 중위는 전사자가 아닌 실종자로 분류됐었다. 만약 적지에서의 수색작업을 중지시킨 밴플리트 사령관의 단호한 명령이 없었다면 분명 더 많은 병사가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아들을 찾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미 공군 전체를 생각한 사령관의 결단이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사령관님,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아닐세. 그나저나 자네 아나?”

“뭘 말씀하시는지?”

“사실 난 내 아들 지미가 공군보다는 육군 보병이 되기를 원했지. 난 지미가 보병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그랬군요?”

“하지만 지미는 늘 공군이 되고 싶어 했어. 공군이 멋지다고 생각했던 거지.

만약 내가 그때 억지로 지미를 육군에 보냈다면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사령관님, 지미는 누구보다 멋진 미국의 공군이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알다마다. 이 세상에 지미처럼 잘 생기고 용감한 공군은 없었을 거야. 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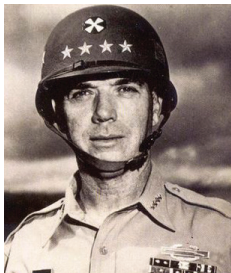
밴플리트 사령관의 느닷없는 웃음 때문에 부관은 당황했다. 그러나 부관과 나는 알 수 있었다. 웃음에 담긴 그의 눈물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밴플리트 사령관은 자신과 아들의 안위보다 함께 싸우는 전우와 그들이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힘들어야 했다. 그는 1952년 한미재단³⁾의 설립에 공헌한 것은 물론 한국 육군사관학교 재건을 위해서도 온 힘을 쏟았다.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아들과 함께 싸운 밴플리트 사령관에게 대한민국은 제2의 조국으로 남았다.

3) 한미재단 한국전쟁 기간 중에 한국과 미국의 유력 인사들이 한국의 지원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기관이다. 제8군 사령관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의 J.A. 밴플리트 대장 등이 주도해 1952년 설립했다.

밴플리트 부자 짧게 들여다보기

| 아들에 대한 수색작업을 중지시키며 밴플리트 사령관이 남긴 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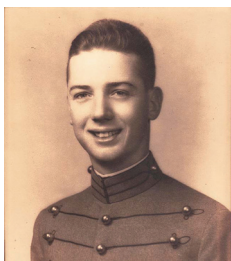
“지금부터 지미 밴플리트 중위에 대한 수색 작업을 즉시 중단하라. 적지에서의 수색작전은 무모하다.”



제임스 밴플리트 육군 대장

| James Award Van Fleet 1892.3 ~ 1992.9 |

밴 플리트는 6·25 전쟁 당시 주한 미8군 사령관을 역임한 장군이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움으로써 미국 전사에서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는 장군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한국에 도착 직후 ‘승산이 없는 전쟁이니 동경으로 철수해야 한다’는 참모의 건의를 듣고 곧바로 ‘나는 승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나와 함께 하기 싫다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단번에 바꾼 명장이었다. 이후 밴 플리트는 1951~53년 미8군을 지휘하며 전쟁 기간 한국 육군을 정예군대로 양성하는 데 기여해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육군의 아버지’(the father of army)라는 격찬을 받았다.



제임스 밴플리트 주니어 공군 대위

| James Van Fleet Jr. 1925.12 ~ 1952.4 |

밴플리트 장군의 아들 밴플리트 2세(지미)도 6·25 전쟁에 자원하여 B-26 폭격기 조종사로 참전하였다.

그러나 지미 대위는 1952년 4월 4일 새벽, 북한의 순천지역(해주 부근)에서 폭격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의 대공포를 맞아 실종되고 말았다. 그 후 그에 대한 구출작전이 진행되었지만 밴 플리트 장군은 아들에 대한 공군의 구출작업이 도를 넘지 않도록 했다. 장군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구출작전을 중지하라”고 명령하고 불필요한 추가 전력 손실을 예방하였다.

우리가 기억하세요!

내가 그린 '밴플리트 부자'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도 오히려 자식 잃은 다른 부모들을 위로하는 편지를 쓴 밴플리트 사령관은 정말 사령관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들 밴플리트 중위를 떠올리며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지도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너무나 사령관다웠던 밴플리트 사령관의 그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봤습니다.”



그림/글 서울 삼각산중학교 3학년
최리아



기획 EBS 

편집 EBS  미디어

사물의 기억,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 3

발행처 :  국가보훈처

인쇄 : 2016년 12월 20일

발행 : 2016년 12월 20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인터넷 : www.mpva.go.kr

전화 : 1577-0606